참여와 협업의 소통공간 '불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전문지'

New Bodhisattva Network

# e-Magazine

제1호(창간호) webzine.newbuddha.org 2016년 7월호

## 매스 미디어, 권력 그리고 조작 의혹

유승무 | 중앙승가대 교수

최근 일부 불교계 인터넷 매체에 대한 종회 차원의 통제와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강한 반발들이 이어지면서, 통제 대상 매체는 물론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불신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불교계 수용자에게는 믿을만한 대안의 정보원이나 제 3의 정보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혹이 심화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불교계의 커뮤니케이션 전체가 불신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 37면에 계속 ▸

## 서울, 길을 걷다 - 한반도 열두 우두머리 산, 삼각산

최연 | (사)해아라 이사장

동양에서는 세상 만물을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때 맞춰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고(天時), 땅은 하늘이 내려준 기운(氣運)으로 자양분(滋養分)을 만들어 인간을 비롯한 땅에 기대어 사는 '뭇 생명'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地利), 사람은 하늘과 땅이 베푼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더불어 일하고, 나누고, 즐기며 화목하게(人和)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57면에 계속 ▸

**신대승의 목소리**
신대승운동을 말한다 2
왜 신대승인가 6

**세계/생명/아시아/한반도**
세계불교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경쟁 10
태국의 승왕 추대파동과 국교화 광기 17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 북한은 새로워지나 28
왜 국제불교계는 CO2 350ppm 목표를 지지하는가 32

**공론장/생활수행**
매스 미디어, 권력 그리고 조작의혹 37
명상이 필요한 시대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명상' 40

**기획/종교/교단**
예전보다 이른 무더위가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다. 43
불교 스타트업(창업)의 현재와 미래 44
시민사회의 위기와 종교의 위상 51
한국 시민사회에서의 불교의 위상과 역할 54

**인문/기행/트렌드**
서울, 길을 걷다 1·2-한반도 우두머리산, 한양도읍 57
어린이 불서 제작을 위한 출판계의 분투 63

**카드뉴스/뉴스클립**
조계종 겸직반대, 불교출판의 현주소 65
희망제작소의 창립 10주년 기념 기획연구 소개 70

# 신대승불교운동을 말한다

유승무 | 중앙승가대 교수, 신대승네트워크 트랜드&리서치센터 대표

이 글은 유승무 교수의 최초 발제문(대표집필)에 대해 〈신대승네트워크〉의 운영진이 함께 검토하고 살을 붙인 것으로 〈회원워크숍〉에서 논의된 바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 ① 일체의 중심주의와 배제의 코드를 넘어서

### 신대승불교운동의 최소한의 정의(定義)를 생각한다.

신대승불교운동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먼저, 신대승불교운동은 '새로운 대승불교'와 '새로운 운동'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대승불교'란 불교의 본원적인 비판성과 사회성을 상실한 채 허울만 남은 현재의 개인주의적(인간중심주의적) 불교의 모습을 지양하고, 성찰성(비판성), 사회성, 시대성을 모두 겸비한 '탈개인주의적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운동'이란, 이른바 '신사회운동'의 일종으로서, 차이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기능분화사회에서 휴화산으로 전락한 구 사회운동(계급운동)의 향수에 젖어있기 보다는 기능분화사회 특유의 모든 불평등 지점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다중적 실천들을 총칭한다.

이상의 내용을 의미소(意味素)별로 다시 정리하면, '신(新=새로운)'은 시대성을 반영한 '대안적인 무엇인가를 제시한다'는 수식어라 하겠고, '대승불교'는 불교 본연의 비판성과 대승의 사회성을 겸비한 불교 본래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개념적 의미이며, '운동'은 실천성을 담보하는 집합적이고 조직적(목적의식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가리킨다. 요컨대 '신대승불교운동'은 비판적 기능/사회적 기능/대안적 기능/실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동하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체이다.

### 신대승불교운동의 시대적 요구를 생각한다.

'왜 지금 신대승불교운동을 시작하는가?'라는 배경적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요구가 우리를 강제하는 바가 있다.

첫째, 이념적 차원에서 볼 때 불교(의 교리)는 연기법적 세계관(무아/무상/공)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실체에 대한 일체의 집착에 순종치 않으며(불순不順), 또 착(着/고정관념/절대화)에 기반한 세속적 태도 일반을 비판하고 초극할 것을 가르친다. 이는 일종의 영구혁명철학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불교는 영구불변의 신이나 영혼, 자아, 본질, 기체(基體) 등을 가정하는 이념이나 종교와 달리 연기적 작동만을 깨닫고, '무아/무상/공'의 이치에 부합하는 실천행인 보살도의 실천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성은 불교 자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불교든 대승불교든 한국불교든 일본불교든 모든 불교는 공히 숙명적으로 자기성찰의 순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비판불교 및 참여불교 등으로 이어지는 불교사가 자기성찰의 순환으로 점철되어 온 것도 이러한 불교의 이념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94년 종단개혁이 조종을 울린 오늘날이야말로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이념적 성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둘째, 신대승불교운동은 서구적 근대성(존재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연기적 사고(혹은 차이이론적 사고)를 지향

하는 문명적 흐름(양자역학 등 물리학, 자기준거적 자기생산을 입증한 생물학, 신경체계가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한다는 뇌과학 등의 지적 발전을 선도하는 흐름)에 부응하는 불교를 지향해야 할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급속한 개인주의화을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할 사회적 기대도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인류문명은 불교로 하여금 시대를 거스르는 대안적 기능의 작동을 통한 근본적인 도전과 응전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신대승불교운동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 즉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감수성 저하(혹은 무감각)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는 대승불교의 비판성과 사회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한국불교의 특수한 기능체계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승불교는 한국불교를 작동시키는 하위기능체계들, 즉 권력배분을 둘러싼 정치체계(종무행정체계 포함), (사원)경제체계, 법률 및 계율체계, 재생산체계 및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출가생활안정화) 등에 대한 비판적 기능과 대안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잡풀이 무성한 1994년 종단개혁의 무덤을 지나 새로운 개혁의 불씨를 예비할 준비가 절실하다.

다섯째,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세계적인 참여불교운동이나 최근 일본의 비판불교운동 등과 연대할 수 있는 한국적 대응체계(공통/공유의 의제들을 다룰 다양한 기능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능체계들이 국경을 넘어서서 작동하는 오늘날의 세계사회에서 모든 실질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포함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사회 수준의 불교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내부의 (대응)기능체계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 실천 활동과 각축의 장을 해부하다.

이제 우리는 휴화산이 되어 버린 구 사회운동의 마그마가 다시 분출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지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던 척박한 땅들을 새롭게 개간하고, 걷어낸 화산재를 밑거름으로 재활용한다는 관점에 설 것이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신대승불교운동은 일체의 중심주의(인간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 신(잡신 및 물신)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 비구중심주의 및 주지중심주의 등)로 인하여 배제되고 버려진 땅들을 모두 개간해 가야한다. 또한 건강한 불과(佛果)를 얻기 위해 구 대승불교의 웃자란 보리수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각종 잡풀은 깨끗하게 제거해 가야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대승불교운동은 건강한 불과가 기대되는 대승불교의 밭에서 연기법적 작동을 벗어나 웃자란 보리수 가지들을 전지(剪枝)하고 무아/무상/공을 벗어난 각종 잡풀들을 제거해야 한다. 웃자란 보리수와 각종 잡풀들이란 결국 비불교화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 –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기성찰과 혁신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한 질문(화두)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태도, 소통적이기 보다는 과시적이고 비뚤어진 종교적 상징, 기성의 주류 제도교단이 세워놓은 신성화/성역화되고 그럼으로써 외려 무아/무상/공의 정신에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는 제도와 체계, 그리고 문화들을 말한다.

표-신대승불교운동의 환경과 실천의제 영역

신대승불교운동의 실천활동의 장(場) 즉, 신대승불교운동이 새롭게 개간하고자 하는 땅들(영역)과 환경조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대승불교운동체, 즉 출범하는 <신대승네트워크>는 도전해야 할 외부환경의 특성(知彼)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①) 사회변화와 시민사회 보편적 상식의 요구에 대한 주류교단의 대응력 퇴행, 출가그룹의 정체성 상실과 공유가치의 파괴, 그리고 이에 대해 '대안 부재의 비판'으로만 대응하는 비제도권과 시민사회 진영의 응전방식 및 일천한 역량 강화 전략, 종교와 국가권력과의 결탁 및 제도교단의 국가권력 하위체계로의 편입현상 등이 살펴보아야 할 외부환경의 특징적인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대승네트워크>는 내부역량을 알고 자신의 역량증대의 출처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계책을 세워야 한다.(知己) 자신이 사용할 응전의 역량과 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찾고 만들어 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구성물을 확보해야 한다.(②)

흩어져 있는 기운과 세력들을 어떻게 융합하고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섞이게 하여 예기치 않은 창발을 분출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기존의 고착화된 경계와 형식을 깨는 파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 신뢰로우면서도 활발발한 활동의 스타일이나 조직문화를 형성해가는 문제 등을 바탕에 깔고 단계적인 정립(鼎立)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대승네트워크>는 제도화된 불교교단(좁게는 한국의 전통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 중심을 두거나 갇히지 않고, 다양한 가치와 주장, 내용물,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단체들이 상호 경쟁하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대승네트워크>는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나서야 할 중요 경쟁장을 설정하고 이를 파악해서 전략적인 대응방법을 창안해 가야한다.(③,④,⑤)

다양하게 분화된 기능과 체계들에 따라 다양한 경쟁의 장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지점을 설정해 본다면, 문화장, 권력장, 공론장을 꼽을 수 있겠다. 문화장(③)을 다양한 수행방법과 불교적 생활 태도 등이 각축하는 장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문화장에서의 각축은 이미 불꽃이 타올랐다고 할 수 있다.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논쟁, 공유/공심이라는 공동체의 초보적인 정신이 파괴되어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세태에 대한 한탄, 기득권에 편승하여 편안히 무임승차하려는 태도,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깊고 오래된 무관심 같은 것들에 대한 비판과 실천적 경쟁은 이미 끓는점을 넘어섰다고 보여 진다. 이제는 새로운 것들, 비판적 흐름들이 얼마나 빠르게 결집하고, 낡은 요소들이 얼마나 적은 폐해를 끼치며 사라져가게 할 것인가(연착륙)만 남아 있다.

권력장(④)을 지배/피지배의 코드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어떤 제도와 규칙이 공인(통용)받을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계와 그에 연결된 사회에서의 다양한 직업(생계)망 혹은 교계 내적으로는 다양한 역할에 따른 직분의 연결망들이 있고, 제도화된 관료체계에서 각축하는 관료장이 있으며, 불교 특유의 전근대적인 차원의 인연망이 서로를 옥죄는 구조가 있다.

교계 직분(직업)들을 놓고 경쟁하는 각축장에서는 과거 비상종단에서 6부중(사부대중에 중간적인 역할의 2부중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났었듯이, 저출가와 포교공백상태의 증가에 따른 전문포교사나 전법사와 같은 새로운 교화중(敎化衆)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제기된 불교자본가론(현응스님)도 다른 측면에서 이 장에서의 경쟁환경의 변화를 예상한다면 암시하는 바가 크다. 물론 스님이 불교자본가라는 역할 정의는 기껏해야 전통자산(건조물과 의례, 역사자산으로 구성된 문화유산)과 토지자산(주로 자연공원지역의 광대한 임야로 이루어진)이 주된 구성요소라는 한계를 전제한 것이지만 말이다.

이 장의 경쟁 환경은 전법과 불교의 사회화를 둘러싼 각축으로 의제가 바뀌어 갈 것이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론장(⑤)은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에서 벌어지는 각축의 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기성의 정규적 공중매체(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1인 미디어 등이 경쟁자로 진입하고 있으며, 출판사업 또한 미디어와의 융합 등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런 융복합을 주도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비판적 여론형성에서 독립된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학문장(교육장)에서의 경쟁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금은 현상적으로 동국대학교의 권력문제로 다투고 있지만 이는 종립학교 또는 불교교육에서의 리더십과 이니셔티브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학술장(교육장)에서 종립학교의 입지가 현재처럼 막중한 재원을 빨아들이는 하마로 계속 존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새로운 인재양성 방법으로의 쇄신과 현장성 있는 불교학 이론에 대한 갈증이 증대하는 수준에 따라 이 장에서의 경쟁환경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지구적 수준(⑥,⑦,⑧)의 공간이 있다. 지역화의 문제, 남과 북의 주류세력 교체, 다문화 상황, 동북아시아 삼국과 주변 강대국의 길항관계, 중국이 추구하는 신실크로드(1대1로)가 가져올 문화적 변동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구적 차원의 변화 즉, 기후변화/에너지, 빈곤, 전쟁, 신자유주의, 신기술/소셜, 인구/가족/공동체의 변화, 종교/신성성/영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거시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실천 활동의 문화/스타일을 생각한다.

신대승불교운동은 일/활동의 스타일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로 그것을 정리해 본다.

**① 플랫폼(허브)**

공유와 협업의 도구(콘텐츠/프로그램/웹-플랫폼)를 제공한다. 공유가치와 지혜로운 전략은 필수이지만 그에 합당한 대중적으로 이용할 도구(연장)이 기술혁명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승이든 대승이든, 신승(新乘)이든 바퀴가 없으면 나가지 못한다. 그 수레바퀴의 쓰임은 한 가운데가 비었을 때 생긴다. 따라서 어떻게 중심을 최대한 비울 것인가, 중심에 과도한 집중을 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끈질긴 신뢰 형성의 노력, 폭넓은 개방성 확보를 통해 사람을 결집(결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② 1당 10으로의 동반성장**

단체 기여도 면에서 구성원들의 분포가 상위 10~20퍼센트가 나머지 80~90퍼센트의 역량을 담보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일반적인 개별 단체 수준의 조직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종형에 가까운 회원역량의 분포구조를 추구한다.

다수의 개미군단 구조보다는 회원들이 1~3년 기간 동행하면 1당 10의 역량으로 성장하는 동반자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회원의 인생 노정이나 미래계획과 연동되는 역량개발교육과 동반자 사업을 비중있게 추구한다. 이를 통해 대승적 평생도반을 지향하며, 길을 걷듯이 천천히 향상일로(向上一路)한다.

**③ 대안형성중심/전략기관 집중화**

대안제시와 대안형성 없는 비판은 공허하다. 따라서 모든 사업/활동에서 대안세력의 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과 활동(서비스와 욕구)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 대중들이 일정 수준으로 결집된다면, 그 전략사업(서비스)은 언제라도 떼어내고 시민사회에 내놓음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네트워크로 분화 발전되게 한다. 그럼으로써 해마다 2~3개의 불교(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낸다.

더불어 구체적인 현장(지역과 단체, 기관 등)에 실용(실천)적 전파력을 추구하며, 핵심전략기관의 성장과 공적 역할에 집중한다. 그럼으로써 백화점식 사업, 그 반대로 편식적인 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해 간다.

# 왜 신대승인가?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 신대승네워크 상임운영위원

## 왜 신대승인가?

우리 불교를 포함한 동북아 불교의 특징을 대승불교라고 말한다. 대승불교의 대승이란 범어 마하야나(Mahāyāna)를 번역한 말로 '큰 수레'를 뜻한다. 그것은 기존의 불교를 '작은 수레'라는 의미의 소승이라고 폄하한데서 출발한 것으로 대승불교가 기성 불교에 대한 반성과 반발로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대승불교 출현의 배경

유사한 시기에 발전한 북인도·중앙아시아의 대승불교와 서아시아의 기독교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음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까지 불교는 비약적 발전을 이룬다. 교단은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장원을 중심으로 정착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교단의 풍요 속에서 교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아비달마라고 하는 교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복잡하고 치밀하게 정리된 교리체계는 불교를 소수의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만들었고, 사변적 논리 속에 실천의 길과 중생구제의 길은 망각되고 불교는 출가자의 전유물이 되어 갔다. 법의 본질은 왜곡되고. 재가자에 대한 교화는 형식화된 가운데 승원은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중생의 삶의 현장과는 멀어져갔다. 출가자들은 중생구제의 이타행을 외면한 채 아라한과를 얻기 위한 수행에만 몰두하였고, 교단은 세속화의 흐름과 타락의 기풍을 낳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고자 일어선 것이 대승불교 운동이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의 출현 이래 승원으로 숨어든 불교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파불교가 성립된 이후 출가자들은 국왕이나 장자(長者)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원조를 받고 선정(禪定)과 교법의 해석에 몰두할 수 있었다. 교단은 분열하였지만 학문적, 철학적으로는 발전하였다. 그러나 세속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난해한 교리나 지켜지지 않는 계율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었다. 출가자들이 세속의 대중들과 유리되면서, 이런 불교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재가자들과 일부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된 불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부처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과 구제의 희망이 불탑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 재가자 중심의 불탑신앙

불탑은 부처님의 입멸 이후 그 사리를 분배하여 모두 8곳에 세운 것이 그 시초이다. 부처님의 교화를 기억하는 수많은 재가불자들과 일부 출가자들 사이에서는 이 8곳의 불탑을 순례하는 성지순례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쇼카왕 시대에 이르러 이 8곳의 불탑에 안치된 사리를 다시 나누어 수천 개의 불탑을 건립하면서 불탑신앙은 널리 퍼지게 된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시면서 장례와 관련한 사항은 전륜성왕에 준하는 방식으로 재가자에게 맡기라고 하신 바에 따라 불탑의 유지와 관리는 재가자의 몫이었다. 또한 불탑을 방문하는 재가자들은 불탑 주변에 꽃과 향, 금전 등을 공양하였는데, 출가교단에서는 꽃 공양이 '초목을 함부로 벌채하지 마라'는 계율에 어긋난다고 하여 금기시 하는 것이었고, 출가자들이 금전을 만지는 것 역시 계율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관습과 율장의 금계에 의해 불탑의 관리는 온전히 재가자의 몫이었고, 불탑은 불지(佛地), 승원은 승지(僧地)로 엄격히 구분되었다. 그

리고 불지에 바쳐진 공양물에 대해서는 승려들이 만져서도, 관리를 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불탑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불탑을 관리하고, 순례객들에게 부처님의 일생과 그 위대함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 불전문학과 대승경전

불탑에 모여든 이들은 부처님의 전생과 현생에서의 수행을 설명하며 부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같은 분은 단 한 번의 생이 아니라 수백 생을 거치면서 수행을 거듭하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은 어느 덧 전생담, 인연담 등으로 정리되면서 불전(佛傳)문학을 성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전문학에 전승된 부처님의 성불하기 전의 보살행을 이야기하고, 들으며, 신도들은 탑에 예배하고 붓다의 위대함을 칭송하였다. 이 불전문학은 자타카(본생경), 본연부 등으로 경전화되고 이런 흐름은 대승경전 성립과 대승불교 출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보살사상

수백 생을 이어오며 중생을 구제하고 자신을 희생한 보살(菩薩)의 발견은 새로운 보살사상의 성립을 이루었고, 새로운 보살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기존의 수행자를 이른바, 성문, 연각, 벽지불로 부르게 만들고 중생구제를 위해 영원히 성불하지 않은 채 이타행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보살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보살의 정의는 해탈보다 중생구제를 우선하는 수행이 최상의 수행이라는 인식을 정립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부처가 되기 위해 보살의 수행을 하는 수많은 수행자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과 '나 자신도 지금 이타행을 행하면 스스로 보살'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만든다. 보살의 자각은 수많은 보살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보살의 출현은 수많은 부처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불에서 다불(多佛)로, 1보살에서 수많은 보살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경전을 독송하고 불탑을 예배함으로써 대비(大悲)의 구세불인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또한 누구라도 전생의 부처님처럼 중생의 구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모두가 보살이라는 자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한 본생경의 보살은 동물이나 재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므로 보살이 굳이 출가자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출재가의 구분이 없었다. 비록 범부라 하더라도 보리심과 대비심을 일으켜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추구하면 누구나 스스로 '보살'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살에게는 먼저 중생 구제의 실천이 강조되었고, 자연히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사람'(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설명되고 자리와 이타를 완성하고자 용맹정진하는 자이므로 마하살타(摩訶薩埵mahasattva ; 大士)라고도 불렸다. 이에 따라 대승불교에서는 큰 위신력을 가진 수많은 불보살이 출현하고 그 수도 무량무수로 많아지는 것이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큰 위신력을 가진 보살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보살사상의 성립에 기반을 둔 것이다.

## 사홍서원과 불퇴전의 보살

중생구제를 위해 영원히 성불하지 않는 보살이 되려면 모든 수행을 망라하는 수행이 필요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서원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 수행이 바로 6바라밀의 실천이고 사홍서원이다. 보살은 어떤 경우에도 부서지지 않는 '큰 서원의 갑옷(弘誓의 大鎧/僧那僧涅)'을 입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 비유되었다. 그리고 성불하지 않은 채 감내하는 수백 생의 삶을 이겨내는 또 다른 기반은 이른바 공(空) 사상이었다. 공 사상은 세계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보살이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이타행에 전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보살의 경지에서 물러서지 않고, 생을 거듭하며 지속적인 이타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살은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에 머물러야 했다. 그래서 보살보다 하위 경지로 떨어지지 않는 불퇴전의 보살이 나타나게 된다.

## 대승의 수행법

대승불교를 추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삼매를 닦는 수행을 계속하였다. 불탑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흠모하며 밤낮으로 부처님을 염하던 이들에게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험들이 생겨나면서 이른바 관불삼매(觀佛三昧)가 성립되고 삼매를 통한 수행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른바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과 같은 경전은 대승의 삼매수행을 이야기 하는 경전이다. 그리고 삼매수행과 뗄 수 없는 것이 염불이다. 이와 같은 수행법이 불탑을 중심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염불과 삼매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한 끝없는 존경과 귀의의 마음이 발현시킨 대승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르나트의 다멕 스투파(Dhamek Stupa)

## 대승불교의 특징

'부처님 근본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시작된 대승불교는 기존의 불교와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특징에서 오늘날 신 대승불교운동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대승불교는 기성 불교에 대한 반성과 교단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격)
- 구체적으로는 중생구제를 망각한 수행, 물신화된 교단운영, 계행의 실추 등에 대한 반성과 반발이다. (내용)
- 대승불교의 주체는 재가자였다. (주체의 문제)
- 대승불교는 불탑(Stupa)을 중심으로 한 열린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개방성)
- 불탑에서 불지(佛地)와 불물(佛物)을 관리하던 재가자들이 순례객들에게 부처님의 일생과 수백 생에 걸친 보살로서의 삶을 이야기(불전문학, 본생경)하기 시작했다. (물적 토대)
- 대승불교의 근원은 부처님을 찬미하는 '찬불승'에서 출발하였다. (종파의 배격과 부처님 법에 근거)
- 대승불교를 일으킨 불자들은 불탑 앞에서 '관불삼매'를 경험하고 수행하기 시작했다. (수행법)
- 부처님에 대한 찬미 속에서 '보살'의 자각이 이루어졌다. (보살의 자각)
- 보살에 대한 자각은 이타행에 대한 실천(보살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보살행)
- 보살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서원(大誓莊嚴)으로 무장해야 했다. (서원)

○ 큰 서원에 근거한 실천은 반야의 지혜가 밑받침되면서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 새로운 보살의 자각이 이루어진다. (반야, 공의 지혜, 이 시대의 보살행)

○ 대승불교는 무상과 무아, 공을 실천적으로 이해하여 세세생생 중생구제를 추구하는 보살행을 제시했다. (무아와 공에 기반한 실천)

○ 보살에 대한 자각과 공의 이해는 깨달음을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깨달음과 실천/사회적 지향)

○ 대승의 실천자들은 출가자나 재가자나 모두 보살로 불렸으며, 가나(gana)를 구성하였다. (출재가자의 협력과 조직적 지향)

○ 대승보살은 서원을 세워(發願) 실천하며, 금계를 준수하기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波羅蜜, 십선계)을 우선하였다. (실천적 지향)

## 대승불교에 기반한 현대의 신대승

앞서 열거한 대승불교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성격과 내용 : 신대승은 기성 불교에 대한 반성과 물신화된 교단 운영, 승풍과 계행이 실추된 종단과 승려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개선의 요구를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한다.

○ 신대승의 활동 : 신대승의 주체들은 불교와 부처님의 본래적 가치 구현, 물신화된 교단 운영의 배격, 실추된 승풍과 계행의 바로 잡기, 근현대 불교사 바로잡기,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자비와 평화가 실현되는 평등무차별의 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주체의 문제 : 신대승의 주체는 출·재가를 가리지 않는다. 시대적, 사회적, 불교적 책무에 대한 각성을 이룬 출·재가자들이 신대승의 주체이다.

○ 개방성 : 신대승은 현대의 불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인터넷 공간 포함)에서 열린 광장의 문화를 지향한다.

○ 물적 토대 : 신대승은 참여하는 모든 대중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물질적 기반에 의한다.

○ 불교적 근거 : 신대승은 현대의 찬불승이다. 석가모니불의 교법을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

○ 수행법 : 신대승 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은 염불과 삼매 등 모든 가능한 수행을 탐구한다.

○ 보살의 서원과 자각 : 신대승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은 스스로 보살이라는 자각과 함께 사회적 각성에 힘쓰며, 이타행을 실천한다.

○ 깨달음과 실천 : 신대승의 참여자들은 개인의 깨달음보다 사회적 각성을 위해 헌신한다.

○ 사회적 지향 : 신대승의 보살들은 한국불교를 바로 세움은 물론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한다.

○ 조직적 지향 : 신대승의 보살들은 사부대중은 물론 참여자 모두가 평등한 지위를 가지며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담보한다.

○ 실천적 지향 : 신대승의 보살은 오계와 십선계를 비롯한 보살의 실천 덕목을 준수한다.

# 세계불교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경재

민정희 ▌INEB 이사, 아시아불교씽크탱크 사무총장

국제불교도연맹(IBC) 2013년도 행사

## 인도와 중국의 외교에 이용되는 세계불교

3월 1일 18세기까지 태국의 수도였던 아유타야를 방문했다. 이날 저녁 아유타야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도연맹(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이하 IBC)의 회의 개막식에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의 '사회운동가를 위한 영어코스' 학생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사가 저녁시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른 아침 방콕에서 출발해 행사 전까지 아유타야를 둘러보았다. 아유타야를 대략 훑어보고 나니, 제 시간에 맞추어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행사장은 아유타야 유적지 내 야외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불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의 불교활동가, 기후변화 회의에서 만난 낯익은 유럽과 미국의 불자들이 눈에 띄었다. 부탄의 왕모 왕축(Wangmo Wangchuk)공주, 라다크 불교계의 상가세나(Sanghasena) 스님, 달라이라마의 특별대사를 역임한 로디 갸리 링포체(Lodi Gyari Rinpoche), 태국의 불교사상가 술락 시바락사 박사를 비롯해 여러 국가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IBC는 주로 5성급 호텔에서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황량하기만 유적지를 개회식 장소로 골랐다는 게 의외였다. 2011년 IBC가 창립하기 전 단체설립 준비를 위해 Global Buddhist Conference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했을 때, 단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할지도 모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항공권은 물론이고 5성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초청자가 티베트 승려 라마 롭장(Lama Lobzang) 스님이 대표로 있던 Ashoke Miss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많은 경비를 조달하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결국 경비의 출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

IBC가 창립한 다음 해에 이 의문이 풀렸다. 라마 톱장 스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인도의 불교성지 순례와 관련한 인도관광청의 홍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 후에 INEB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힌두교신자가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인도에서 불교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몇몇 해외 언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정부의 불교를 활용한 문화외교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IBC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언론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도정부가 중국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불교와 IBC를 활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39개국의 300여개 불교단체가 결합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불교 조직 IBC의 고문, 대표단, 자문위원, 운영위원에는 각국 불교교단의 대표자들이 이름을 올려놓았다. 한국에서도 조계종의 진제 종정과 자승 총무원장이 고문단과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불교인구가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불교 관계자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2011년 IBC 회의 창립 당시에도 대만불교 대표단이 중국 본토의 불교인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1년 IBC 창립 발기인 회의에 인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외교관들도 초청되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은 참석을 취소했다. 중국 외교부가 "달라이라마는 순수한 종교인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종교를 구실로 분열주의 행동에 관여해온 인물"이라며 달라이라마의 회의 참석과 더불어 발언을 막아달라고 인도정부에 요청했으나 인도정부가 거절한 것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인도 정부가 달라이라마 관련 요청을 거절하자 비슷한 시기에 예정된 인도-중국 국경분쟁에 대한 회담도 함께 취소했다. 1950년대 말 중국이 인도의 아루나찰 국경지대에 도로를 건설하고 1962년 라다크를 침공하기 전까지 인도-중국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된 바 있다.

IBC발기인 회의에 예정대로 달라이라마가 참석했다. 그는 세상의 폭력을 끝내고,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의 다른 종파간 연합을 요청했다. 인도정부는 1959년 중국인민군이 티베트 라사를 침공한 후, 지난 60여 년 간 달라이라마와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해왔지만 2011년까지 달라이라마나 티베트불교를 활용하지 않았다. 인도정부가 불교를 활용하기 시작한데에는 학자이자 인도정부에서 외교비서를 지낸 크리슈난 스리니바산(Krishnan Srinivasan)과 같은 외교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리슈난은 인도가 경쟁력을 다투는데 있어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 불교는 가장 훌륭한 자산 중 하나로서 분명히 우리가 가진 소프트 파워의 요소이다. 세계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집이라는 것이 주요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다른 종교와 함께 불교를 이용해서 해외문명(불교)의 전통을 홍보하고 있지만, 인도와 경쟁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한편, "중국이 훨씬 많은 재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이 불교를 이용할 경우, 엄청난 잠재력과 해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 행사에 불교이용

불교를 문화외교의 도구로서 활용하겠다는 인도정부의 계획은 맘모한 싱(Mammohan Singh) 총리 시절, 2006년 비하르 주에 나란다(Nalanda) 대학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도 프로젝트 초기에는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나란다에서 불교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나란다 대학 복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중국이 나란다 대학 복원에 1백만 달러를 기부했으나 인도정부가 중국 스타일의 도서관 건립에 분할 지원함으로써 중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권에 들어서서는 인도 문화외교의 핵심에 불교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한층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인도가 인프라 건설 공사와 에너지 공급라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가 있는 네팔에서 중국과 경쟁적으로 불교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해왔다.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 양국이 보다 큰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으로 인도는 미얀마의 도로, 고속도로, 항만, 공항, 전력과 탄화수소 분야에 중국이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려해왔다. 특히 인도가, 시트웨(Sittwe)항구를 현대화하고, 미얀마와 인도 국경의 일부를 형성하는 칼라단 강을 준설함으로써 인도북동부를 통해 미얀마로의 접근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라카인 주는 중국이 이미 인프라 공사를 선점해온 지역이다. 중국 또한 라카인 주의 캬욱퓨에서 항구를 건설 하고 있고 중동에서 오는 연료를 연안 지방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을 건설중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미얀마 정부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 2012년 12월 인도정부는 3일간 미얀마 양곤 시타구(Sittagu) 국제불교아카데미에서 '국제불교문화유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의 개회식에는 인도의 외교부장관(Salman Khurshid), 미얀마의 부통령(U Sai Mauk)과 더불어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불교학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는 2013년 미얀마 양곤 쉐다곤 파고다에 5 미터 짜리 불상을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3월 인도정부 산하의 한 문화외교기관은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점증하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불교아카데미'와 함께 국제불교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이었던 '카필라바스투의 붓다 사리'를 스리랑카의 수도에 보냈고, 수많은 인파가 사리를 보기위해서 몰려들었다. 인도는 이밖에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등 인도의 거의 모든 이웃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해온 중국의 전략적 포위에 우려하고 있다.

## 중국정부에 불교는 티베트관련 국가이미지 개선용

그런데 인도가 불교를 외교에 활용하는 양태는 중국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다. 중국불교는 인도정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불교포럼과 같은 컨퍼런스에 후원하고 있다. 2006년 중국 항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불교포럼에는 35개국 1천 여 명의 승려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세계불교포럼은 2009년, 2012년, 2015년, 대만, 홍콩 등에서 개최되어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을 가깝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불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 포럼에 달라이라마만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했다.

중국은 또한 베이징 영광사(靈光寺)에 보존해온 붓다의 치아사리를 2011년 양곤, 네피도 등 미얀마의 여러 지역으로 보내 40일간 전시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와 영광사 간의 종교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중국 공산당이 후원해온 '아시아 태평양 교류협력재단(Asia Pacific Exchange and Co-operation Foundation)'은 UN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와 협력해서 30억 달러를 들여 붓다의 탄생지가 있는 네팔 룸비니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 계획은 공항, 고속도로, 호텔, 기타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이 발표될 당시 룸비니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초호화 고층빌딩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역 내 우려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협의 부족으로 저항이 일자, 네팔 정부는 후에 이 계획을 거부하고 룸비니를 성지이자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였다. 중국의 룸비니 개발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지

만 인도의 보드가야, 사라나트 등 주요한 불교성지의 명성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였다.

과거 수 십년간 네팔은 인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이제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네팔정부는 1998년 이후 달라이라마의 룸비니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네팔에 사는 티베트 난민들도 중국의 압력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인도의 이웃국가들과 가까워지는 중국에 대해서 인도가 우려하듯이 중국 또한 인도가 일본, 베트남, 호주, 기타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도와 이들 국가들을 함께 엮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불교를 활용한 중국의 외교는 인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도 의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 불자들을 세계불교포럼에 초대하고, 룸비니 성지를 복원하려 했던 중국의 계획은 달라이라마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시각이다. 더불어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2008년 이후 중국의 한족 이주 등 대 티베트 정책에 저항하고 티베트 자치를 요구하며 분신하는 티베트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점을 보여주고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옹호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 세계불교,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할 해야

인도와 중국정부가 불교유적지를 개발하고 문화외교에 불교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도가 지원하는 IBC나 중국이 후원하는 세계불교포럼의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조직들이 '국제적(international, 또는 global)'이라는 이름만 달았지, 전혀 국제적이지 않고 ‘지역적(regional)’이지도 않다는 것을, 각국의 참여자들이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IBC가 인도 트리푸라(Tripura)의 주도 아갈탈라(Agartala)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불교성지에 대해 전 세계 불교계의 관광 또는 자원봉사 관광 진작, 각종 페스티발 개최, 인도 동북부에 불교대학 설립과 교육인프라 구축, 인도 동북부 불교계 지원” 등 인도에만 관련된 내용인데다 지속가능한 개발과는 간격이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IBC가 해온 주요 사업은 오로지 컨퍼런스, 세미나, 회의 등이었다. 이는 아마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불교포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 조직에는 아시아 지역의 불교지도자들이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글로벌한 이슈를 아시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또는 스리랑카와 미얀마와 같이 무슬림과 불교도간의 갈등이 불씨로 남아있는 지역에서 불교가 종교간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IBC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시아의 참여불교운동 활동가들이 있다는 점이다.

## 인도와 중국의 외교에 이용되는 세계불교,

3월 1일 18세기까지 태국의 수도였던 아유타야를 방문했다. 이날 저녁 아유타야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도연맹(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이하 IBC)의 회의 개막식에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의 ‘사회운동가를 위한 영어코스’ 학생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사가 저녁시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른 아침 방콕에서 출발해 행사 전까지 아유타야를 둘러보았다. 아유타야를 대략 훑어보고 나니, 제 시간에 맞추어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행사장은 아유타야 유적지 내 야외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불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의 불교활동가, 기후변화 회의에서 만난 낯익은 유럽과 미국의 불자들이 눈에 띄었다. 부탄의 왕모 왕축(Wangmo Wangchuk)공주, 라다크 불교계의 상가세나(Sanghasena) 스님, 달라이라마의 특별대사를 역

임한 로디 갸리 링포체(Lodi Gyari Rinpoche), 태국의 불교사상가 술락 시바락사 박사를 비롯해 여러 국가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IBC는 주로 5성급 호텔에서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황량하기만 유적지를 개회식 장소로 골랐다는 게 의외였다. 2011년 IBC가 창립하기 전 단체설립 준비를 위해 Global Buddhist Conference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했을 때, 단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할지도 모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항공권은 물론이고 5성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초청자가 티베트 승려 라마 롭장(Lama Lobzang) 스님이 대표로 있던 Ashoke Miss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많은 경비를 조달하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결국 경비의 출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 IBC가 창립한 다음 해에 이 의문이 풀렸다. 라마 롭장 스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인도의 불교성지 순례와 관련한 인도관광청의 홍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 후에 INEB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힌두교신자가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인도에서 불교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몇몇 해외 언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정부의 불교를 활용한 문화외교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IBC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언론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도정부가 중국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불교와 IBC를 활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39개국의 300여개 불교단체가 결합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불교 조직 IBC의 고문, 대표단, 자문위원, 운영위원에는 각국 불교교단의 대표자들이 이름을 올려놓았다. 한국에서도 조계종의 진제 종정과 자승 총무원장이 고문단과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불교인구가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불교 관계자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2011년 IBC 회의 창립 당시에도 대만불교 대표단이 중국 본토의 불교인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1년 IBC 창립 발기인 회의에 인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외교관들도 초청되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은 참석을 취소했다. 중국 외교부가 "달라이라마는 순수한 종교인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종교를 구실로 분열주의 행동에 관여해온 인물"이라며 달라이라마의 회의 참석과 더불어 발언을 막아달라고 인도정부에 요청했으나 인도정부가 거절한 것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인도 정부가 달라이라마 관련 요청을 거절하자 비슷한 시기에 예정된 인도-중국 국경분쟁에 대한 회담도 함께 취소했다. 1950년대 말 중국이 인도의 아루나찰 국경지대에 도로를 건설하고 1962년 라다크를 침공하기 전까지 인도-중국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된 바 있다. IBC발기인 회의에 예정대로 달라이라마가 참석했다. 그는 세상의 폭력을 끝내고,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의 다른 종파간 연합을 요청했다. 인도정부는 1959년 중국인민군이 티베트 라사를 침공한 후, 지난 60여 년 간 달라이라마와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해왔지만 2011년까지 달라이라마나 티베트불교를 활용하지 않았다. 인도정부가 불교를 활용하기 시작한데에는 학자이자 인도정부에서 외교비서를 지낸 크리슈난 스리니바산(Krishnan Srinivasan)과 같은 외교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리슈난은 인도가 경쟁력을 다투는데 있어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 불교는 가장 훌륭한 자산 중 하나로서 분명히 우리가 가진 소프트 파워의 요소이다. 세계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집이라는 것이 주요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다른 종교와 함께 불교를 이용해서 해외문명(불교)의 전통을 홍보하고 있지만, 인도와 경쟁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한편, "중국이 훨씬 많은 재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이 불교를 이용할 경우, 엄청난 잠재력과 해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 행사에 불교이용

불교를 문화외교의 도구로서 활용하겠다는 인도정부의 계획은 맘모한 싱(Mammohan Singh) 총리 시절, 2006년 비하르 주에 나란다(Nalanda) 대학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도 프로젝트 초기에

는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나란다에서 불교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나란다 대학 복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중국이 나란다 대학 복원에 1백만 달러를 기부했으나 인도정부가 중국 스타일의 도서관 건립에 분할 지원함으로써 중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권에 들어서서는 인도 문화외교의 핵심에 불교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한층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인도가 인프라 건설 공사와 에너지 공급라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가 있는 네팔에서 중국과 경쟁적으로 불교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해왔다.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
**"중국은 중동에서 오는 연료를 연안지방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을 건설 중이기 전략적 요충지"**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 양국이 보다 큰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으로 인도는 미얀마의 도로, 고속도로, 항만, 공항, 전력과 탄화수소 분야에 중국이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려해왔다. 특히 인도가, 시트웨(Sittwe)항구를 현대화하고, 미얀마와 인도 국경의 일부를 형성하는 칼라단 강을 준설함으로써 인도북동부를 통해 미얀마로의 접근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라카인 주는 중국이 이미 인프라 공사를 선점해온 지역이다. 중국 또한 라카인 주의 캬욱퓨에서 항구를 건설 하고 있고 중동에서 오는 연료를 연안지방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을 건설중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미얀마 정부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 2012년 12월 인도정부는 3일간 미얀마 양곤 시타구(Sittagu) 국제불교아카데미에서 '국제불교문화유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의 개회식에는 인도의 외교부장관(Salman Khurshid), 미얀마의 부통령(U Sai Mauk)과 더불어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불교학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는 2013년 미얀마 양곤 쉐다곤 파고다에 5 미터 짜리 불상을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3월 인도정부 산하의 한 문화외교기관은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점증하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불교아카데미'와 함께 국제불교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이었던 '카필라바스투의 붓다 사리'를 스리랑카의 수도에 보냈고, 수많은 인파가 사리를 보기위해서 몰려들었다. 인도는 이밖에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등 인도의 거의 모든 이웃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해온 중국의 전략적 포위에 우려하고 있다.

## 중국정부에 불교는 티베트관련 국가이미지 개선용

그런데 인도가 불교를 외교에 활용하는 양태는 중국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다.

중국불교는 인도정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불교포럼과 같은 컨퍼런스에 후원하고 있다. 2006년 중국 항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불교포럼에는 35개국 1천 여 명의 승려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세계불교포럼은 2009년, 2012년, 2015년, 대만, 홍콩 등에서 개최되어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을 가깝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 이 포럼에 달라이라마만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했다.

중국은 또한 베이징 영광사(靈光寺)에 보존해온 붓다의 치아사리를 2011년 양곤, 네피도 등 미얀마의 여러 지역으로 보내 40일간 전시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와 영광사 간의 종교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중국 공산당이 후원해온 '아시아 태평양 교류협력재단(Asia Pacific Exchange and Co-operation Foundation)'은 UN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와 협력해서 30억

달러를 들여 붓다의 탄생지가 있는 네팔 룸비니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 계획은 공항, 고속도로, 호텔, 기타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이 발표될 당시 룸비니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초호화 고층빌딩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역 내 우려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협의 부족으로 저항이 일자, 네팔 정부는 후에 이 계획을 거부하고 룸비니를 성지이자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였다. 중국의 룸비니 개발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지만 인도의 보드가야, 사라나트 등 주요한 불교성지의 명성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였다.

과거 수 십년간 네팔은 인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이제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네팔정부는 1998년 이후 달라이라마의 룸비니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네팔에 사는 티베트 난민들도 중국의 압력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인도의 이웃국가들과 가까워지는 중국에 대해서 인도가 우려하듯이 중국 또한 인도가 일본, 베트남, 호주, 기타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도와 이들 국가들을 함께 엮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불교를 활용한 중국의 외교는 인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도 의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 불자들을 세계불교포럼에 초대하고, 룸비니 성지를 복원하려 했던 중국의 계획은 달라이라마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시각이다. 더불어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2008년 이후 중국의 한족 이주 등 대 티베트 정책에 저항하고 티베트 자치를 요구하며 분신하는 티베트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점을 보여주고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옹호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 세계불교,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할 해야

인도와 중국정부가 불교유적지를 개발하고 문화외교에 불교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도가 지원하는 IBC나 중국이 후원하는 세계불교포럼의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조직들이 '국제적(international, 또는 global)'이라는 이름만 달았지, 전혀 국제적이지 않고 ‘지역적(regional)’이지도 않다는 것을, 각국의 참여자들이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IBC가 인도 트리푸라(Tripura)의 주도 아갈탈라(Agartala)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불교성지에 대해 전 세계 불교계의 관광 또는 자원봉사 관광 진작, 각종 페스티발 개최, 인도 동북부에 불교대학 설립과 교육인프라 구축, 인도 동북부 불교계 지원” 등 인도에만 관련된 내용인데다 지속가능한 개발과는 간격이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IBC가 해온 주요 사업은 오로지 컨퍼런스, 세미나, 회의 등이었다. 이는 아마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불교포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 조직에는 아시아 지역의 불교지도자들이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글로벌한 이슈를 아시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또는 스리랑카와 미얀마와 같이 무슬림과 불교도간의 갈등이 불씨로 남아있는 지역에서 불교가 종교간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IBC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시아의 참여불교운동 활동가들이 있다는 점이다.

# 태국 불교의 승왕 추대 파동과 '국교화' 운동의 광기

크세연구회 | 2009년 결성된 동남아시아 전문 온라인 연구공동체

## 좌절한 양극화 사회의 기성 종교가 벌이는 현실 정치의 대리전

군사정권 치하의 태국이 사회 경제적 활력을 상실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불교계만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다. 태국 불교의 수장인 승왕(Supreme Patriarch, 쌍카랏[สังฆราช, sangha -raja]) 선출을 두고 발생한 이 분규는, 급기야 2월16일(월)에는 승려들의 시위와 몸싸움 모습까지 노출하면서 국제 언론의 주목도 받았다. 이들은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고" 승단이 선출한 승왕 후보자의 인준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태국에선 보기 드문 승려들의 몸싸움 모습으로 인해 승왕 임명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내막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태국의 '승왕'(쌍까랏)은 남방상좌부(일명: 소승불교) 전통의 양대 종단인 마하 니까야(Maha Nikaya)와 탐마윳니까야(Dhammayuttika Nikaya, 담마윳띠까) 모두를 대표하며 30만명에 달하는 태국 승려 전체의 수장으로서, <승가법>에 따라 '승가 최고회의'(Supreme Sangha Council: SSC)에서 추대된 후, 총리의 임명 제청과 국왕의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태국 사회는 최근 몇년 간 승왕직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2013년 10월 세수 100세로 입적한 니야나상와라 수와다나(Nyanasamvara Suvaddhana, 솜뎃 프라 냐냐상완[สมเด็จพระญาณสังวร]: 1913~2013) 승왕은 무려 24년간 승왕의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니야나상와라 승왕은 말년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4년부터는 솜뎃 끼야우(Somdet Kiaw: 1928~2013)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그는 니야나상와라 승왕보다 2달 앞선 시점인 2013년 8월에 사망했다.

솜뎃 끼야우 스님의 뒤를 이은 인물은 솜뎃 프라 마하라차몽칼라찬(Somdet Phra Maharatchamong khalachan, 솜뎃 추웡[Somdet Chuang]: 1925년생) 스님으로서, 대형 사찰 '왓 빡남 파시짜른'(Wat Pak Nam Phasi Charoen)의 주지이다. 그는 솜뎃 끼야우 직무대행이 사망한 후부터 직무대행을 수행하다 2014년 1월 '승가 최고회의'에서 새로운 승왕으로 지명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2014년 5월에 발생한 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왕의 인준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후 승단 내부의 갈등과 부패 폭로전 속에서 승왕 추대 절차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솜뎃 추웡 스님은 온갖 비난과 공격 속에도 여전히 승왕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면서 '승가 최고회의' 의장도 겸직해왔다. 금년 1월11일 '승가 최고회의'는 8명의 후보자 중 솜뎃 추웡 스님을 승왕으로 추대한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결정은 태국 불교의 최고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확전되고 있다.

## 불교의 정치화 : '레드 불교' 대 '옐로 불교' ?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20세기의 태국 불교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득권 체제의 영적 토대였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양상의 정치적 갈등에 봉착했다.

태국은 이동통신 재벌 출신 정치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1949년생) 총리의 시대로 21세기를 시작했다. 탁신은 태국 역사상 최초로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총리가 됐고, 2005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둬 재선됐다. 그의 제1기 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그는 특히 태국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빈곤층에 돌려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북부 및 북동부 지방 농민과 도시 빈민층들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탁신 이전에는 정치인들의 관심 밖이었다. 남부지방 무슬림 소요사태와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학살과 인권유린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권은 저금리 농경자금 대출 등 경제적 지원정책과 30바트 의료정책 등 복지정책을 통해 기층에서 열광적 지지와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닦았다.

하지만 탁신의 정치적 성공은 왕당파, 군부, 사법부, 방콕 중심의 중상류층 등 전통적인 기득권 계층과 고무농사를 중심으로 상대적 풍요를 누리던 태국 남부지방 사람들에겐 위협으로 간주됐다. 그들은 곧 반발하기 시작했다. 방콕에서 중상류층 대중이 대규모 시위로 바람을 잡고 군부 쿠데타(2006년 및 2014년)로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은 친-탁신계 정권을 3번이나 연속으로 전복시켰다. 이 과정에서 태국은 '레드셔츠'(UDD)와 '옐로셔츠'(PAD)로 상징되는 첨예한 "컬러" 양극화 사회가 됐다. '레드셔츠 운동'은 친-탁신 성향의 북부/북동부 지방 농민 및 도시 노동자 중심 대중운동이고, '옐로셔츠 운동'은 반-탁신 성향 방콕/남부지방 중심 중상류층의 대중운동이다. (이 중 '옐로셔츠 운동'은 테러나 다름없는 '국제공항 점거사태'라든지 "민주주의 반대"라는 비상식적 주장 등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지개 셔츠 운동'이나 '멀티컬러 운동' 등으로 외투를 갈아입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친-탁신 진영은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때마다 반-탁신 진영은 쿠데타나 사법부의 선거무효 판결 등을 통해 정권을 붕괴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양 진영의 대립은 너무도 첨예하여, 이제 내전의 발발조차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됐다.

'루웡따 마하 부워'의 생전 모습

불교계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승왕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이 펼치는 싸움의 완벽한 대리전이다. '옐로셔츠' 진영이 친-탁신 성향의 승왕 추대를 반대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승왕 대행 솜뎃 끼야우 스님 역시 '옐로셔츠 운동'을 창시한 언론재벌 손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 1947년생)의 반대에 시달렸고, "살아있는 아라한"(생불)로 불리던 루웡따 마하 부워(Luangta Maha Bua: 1913-2011) 스님으로부터도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마하 부워 스님은 'IMF 채무 반환 모금운동'을 주도하면서 초기에는 탁신 정권과 관계가 좋았지만, 이후 반-탁신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솜뎃 끼야우 승왕 대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솜뎃 추웡 현 승왕 대행의 추대 파동 역시 동일한 구도이지만,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번에도 표면에는 부패 의혹이 불거져 있지만, 현 승왕 대행의 지지자들은 반대파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동기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솜뎃 추웡 승왕 대행은 '왓 프라 탐마까이(담마까야)'(Wat Phra Dhammakaya) 사원과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왓 탐마까이 사원'은 "친-탁신 사원"으로 인식되는 사찰이다. 따라서 불교계의 갈등은 표면상 솜뎃 추웡 승왕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반 논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왓 탐마까이 사원' 세력과 불교계 내의 범-보수파 사이의 싸움이며, 넓게 보면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의 대리전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태국이 "사실상의" 불교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불교계의 첨예한 갈등은 국가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 좌절한 양극화 사회의 기성 종교가 벌이는 현실 정치의 대리전

왓 탐마까이 : 태국 불교의 신흥종단

'왓 탐마까이 사원'은 유명한 명상스승 프라 몽콘 텝무니(Phramongkolthepmuni: 1885~1959) 스님이 개창하여, 그의 수제자이자 여성 수행자(=매치, mae chi)짠 콘녹융(Chandra Khonnokyoong: 1909~2000) 스승 시대를 거쳐, 현재의 주지 프라 탐마차요(Phra Dhammachayo: 1944년생) 스님의 지도체제로 이어진 종교전통이다.

이 종교운동은 현대적이면서 거대한 사원 시설과 첨단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포교전략을 통해 신흥 부유층 사이를 파고들어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찰"로 부상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신흥 종단이기도 하다.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교세 성장을 보인 종단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아주사(Azusa)에 '담마까야 개방 대학'(Dhammakaya Open University: DOU)을 설립하는 등 세계 각국에 40곳의 지부도 두고 있다. 아마도 태국 불교에서 탐마까이 사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한국 개신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차지하는 위상보다 클 것이다.

탐마까이 종단이 정말로 "친-탁신 사찰"인가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 종단이 이미 대중적으로는 '친-탁신 사찰'이란 이미지를 확고히 지니고 있는 한, '옐로셔츠' 진영이 이 종단에 적대적임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분파가 '광신적 신앙'(cult: 컬트)을 가르친다는 의혹은 불교계 내 여타 정통 보수파까지도 이 사찰에 비판적 입장을 갖도록 만들었다. 보수 성향 영자지 <방콕포스트>(The Bangkok Post)의 전 논설주간 사닛수다 에까차이(Sanitsuda Ekachai)는 승왕 추대 파동에 관한 컬럼(2016-1-6)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한편, 탐마까이 종단은 개인이 얻게 될 공덕(범어-puṇya, 빨리어-puñña, 功德)의 양이 탐마까이 종단에 기부(보시)하는 재물의 양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열반(Nirvana) 역시 천상에 있다고 가르친다. 개인이 누리게 될 호사와 안락 역시 그가 보시한 재물의 양에 달려 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지불한 만큼 받는다는 것이다.
>
> 순수주의자는 이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태국의 민간 불교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 그런가? 하지만 탐마까이 종단은 현대적 마케팅 전략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펀드를 조성했다. 그 덕분에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찰이 됐다.
>
> 그들이 성대한 의식을 거행할 때는, 새로운 신자들을 더 많이 데려오고 더 많은 돈을 보시한 신자들부터 주지스님에게 더 가까운 자리에 앉도록 한다. 내부자나 탈퇴자들이 폭로한 탐마까이 교단의 우주론을 살펴보면, 그 주지인 프라 탐마차요 스님의 위상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다. 그는 성자이고, 종말의 날이 왔을 때 중생들을 구원할 구세주이다.
>
> 전통 사찰들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 반면, 탐마까이 사원은 질서, 청결, 우아함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이 중산층과 신흥 부유층들의 코드에 맞았다. 그들은 초자연적 힘을 믿지만, 자신들의 세속-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현대적 외형과 스타일을 지닌 사찰을 원한다.
>
> [산하의] 펀드 모집 단체들 역시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탐마까이 종단과 관련 있다는 점은 밝히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탐마까이 종단은 여타 종단들이 하지 못했던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다."

프라 탐마차요 스님은 지난 2012년 발언을 통해, 자신이 명상 중 사망한 애플 CEO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영혼을 만났다고 주장해 국제적인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역사학자 겸 원로 불교 사회운동가 술락 시와락(Sulak Sivaraksa, 술락 시바락사: 1933년생)은 기본적으로 군주제를 옹호하는 보수적 인물이긴 하지만, 태국 사회에선 비교적 양심적 비평가 중 한명으로 인식된다. 그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그(=솜뎃 추웡 승왕 대행)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가 탐마까이 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탐마까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 종단은 불교가 자본주의 및 소비자주의와 함께 해야 한다고 선전한다."

사닛수다 에까차이는 승왕 추대를 둘러싼 종교 권력의 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탐마까이 종단은 부유한만큼 불교계 장로들(원로 스님들)의 처우를 돌보는 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장로들 역시 탐마까이 운동의 교세 확장을 기성 승단의 도움 없이 태국 상좌부불교를 국제화시킨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탐마까이 종단이 그 동안 승려들의 장학사업을 벌인 것도 전국적 지지세 형성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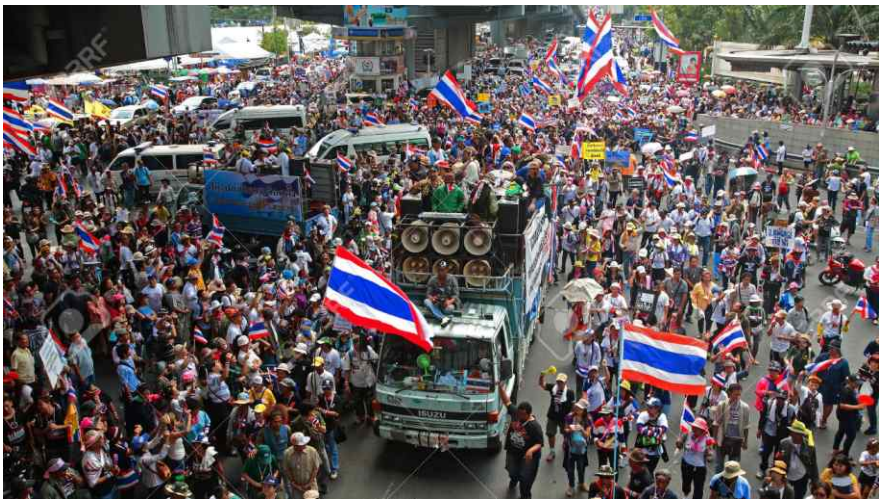
만일 차기 승왕이 탐마까이 종단 지지자일 경우, 이 논란의 종단이 태국 승가 전체를 장악할 것이란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 경우 왜곡된 형태의 불교 교설은 제도화될 것이고, 승단 내 직제들도 탐마까이 종단의 의지에 따라 할당됨으로써, 이 종단이 승단 공동체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탐마까이 종단의 주지 프라 탐마차요 스님은 1999년 및 2002년에 사기 횡령에서 부정부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소 고발에 시달렸지만, 친-탁신 정권의 '국가 불교청'(Thai National Office for Buddhism)에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또한 사망한 니야나 상와라 승왕이 그를 불교 교리의 왜곡과 절도 혐의로 처벌할 것을 교시했지만, 솜뎃 추웡 스님이 의장으로 있는 '승가 최고위원회'는 체탈도첩(=강제환속)에 이를 수도 있는 승왕의 교지 내용을 거부한 바 있다. 프라 탐마차요 스님은 일종의 저축은행인 클렁찬 신용조합(Klongchan Credit Union Cooperative: KCU)에서 발생한 횡령사건과 관련해 현재도 사법 당국의 수사대상으로 올라 있다.

## 빈티지 벤츠, 극우 승려, 특수수사국

지난 1월11일, '승단 최고위원회'는 논란 속에서 솜뎃 추웡 승왕 대행을 새로운 승왕으로 선출했다. 이날 오전 정부청사의 총리실에는 저명 승려 한명이 나타나 솜뎃 추웡 승왕의 추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이 탄원서에는 30만명의 서명이 첨부돼 있었고, 총리가 솜뎃 추웡 승왕 후보를 국왕에게 천거하는 대신, 국왕에게 또 다른 승왕을 임명하는 전권을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탄원서의 대표 제출자는 보수 진영의 유명한 극우 승려 붓다 이싸라(Buddha Issara)였다.

붓다 이싸라는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진행된 기득권층 대중의 가두시위 당시,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전 부총리와 함께 시위대의 선봉장 노릇을 한 인물이다. 당시 시위는 친-군부, 친-기득권, 친-왕실 성향을 갖고 있었고, 군부 쿠데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위 당시 붓다 이싸라의 지도 하에 있던 사수대(=자경단)는 과격하고 무자비한 폭력



국민개혁위원회의 시위 모습

을 휘둘러 주목을 받았다. 이 시위의 주최측은 자신들을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옐로셔츠 운동'의 새 버전이었다. 따라서 이싸라 승려가 솜뎃 추웡 승왕 반대운동에 나선 것은 옐로셔츠 진영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군사정권은 솜뎃 추웡 승왕 임명 문제에 우회

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솜뎃 추웡 승왕과 '레드셔츠' 진영과의 연관성 때문에 군정의 거부감은 당연한 일이지만, 군사정권 지도자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승단의 일은 승단에서 해결해야 한다"든가, "정 해결이 안 되면 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무부 산하 '특수수사국'(DSI)을 통해 빈티지 벤츠 사건의 강도 높은 수사와 헌법기관인 옴부즈맨(행정감찰관실)의 "추대 반대" 표명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승왕 측은 문제가 된 벤츠를 "원래 시주한 신도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무시됐고, DSI는 3월7일 해당 벤츠를 압수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군 당국은 솜뎃 추웡 승왕 지지 단체인 '태국불교수호센터'(Buddhism Protection Centre of Thailand: BPCT) 사무총장 프라 메티탐마짠(Phra Methithammajarn) 승려를 "태도 교정"이란 명목으로 연행 후 잠시 동안 억류하기도 했다. "태도 교정"이란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군 당국이 반체제 인사나 학생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로서, 군 부대 내에 단기 혹은 장기 구금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고위급 승려를 "태도 교정에 초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불교의 국교화 운동과 불교 민족주의

승왕 추대 파동은 '불교의 국교화 운동'이 부상하는 흐름과 겹쳐지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16일 시위 당시, 승왕 지지 단체인 '태국 승가재가동맹'(SBAT)은 "승왕의 조속한 인준" 뿐만 아니라 "불교의 국교화"도 함께 요구했다. 불교 국교화 운동에 부정적인 이들은 군사정권이 국교화를 통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을 군부와 대척점에 선 승왕 지지파가 외쳤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 국교화'의 의제가 태국 정치의 양대 진영 중 어느 한쪽에서만 우세한 주장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최근 불교의 국교화 주장을 선도하는 단체는 '국교로서의 불교 진흥회'(Committee to Promote Buddhism as the State Religion: CPBSR)이다. 그러나 CPBSR이 태국 정치의 양대 진영 중 어느 정파에 더 친화적 성향을 지녔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마도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태국에서, 국교화 주장은 양대 진영 모두에서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불교의 국교화' 주장이 특히 무슬림에 대한 경계심에서 기인했다는 증언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감시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태국지부의 수나이 파숙(Sunai Phasuk) 씨는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회견에서 "[태국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의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통상 2가지 요소가 언급된다. 하나는 2004년 이후 태국 최남단 3개 도에만 국한해서 진행 중인 무슬림 무장반군 소요사태로서, 지난 10년간 6천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됐다. 무슬림 소용사태는 무슬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는다는 정서에서 출발했다. 여러 반군 단체들은 그 실체가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태국 정부가 누구를 협상 대상자로 삼아야 할지도 모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지방 주류인구인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자치권 요구는 모든 반군의 공통점이다. 반군들은 주로 군인, 교사, 공무원을 공격대상으로 삼는데, 불교 승려들 역시 태국의 체제적 상징으로 보아 공격대상으로 삼는다.

다른 하나는 이웃국가인 미얀마에서 반-무슬림 불교 근본주의가 급성장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미얀마에서는 특히 위라투(Wirathu: 1968년생)라는 저명 극우 승려가 '969 운동'이라는 급진적 버마 민족주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군사정부의 묵인 하에 범-무슬림 인구에 대한 학살, 방화,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특히 미얀마 서부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로힝야족(Rohingya people)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해, 동남아시아 바다에 지중해 난민 사태보다 규모가 큰 보트피플 물결과 국제 인신매매 파동을 출현시켰다. '969운동'의 흐름은 보다 체계적인 단체 '마바타'(Ma Ba Tha: 인종종교수호위원회)로 이어졌고, 정부로 하여금 친-불교 반-무슬림 법안을 제정토록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태국 불교계에도 최근 미얀마의 사례를 모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얀마의 불교 근본주의자들과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 참조: 미얀마 극우 승려들은 스리랑카 극우 승려들과 빈번한 교류를 갖고 있는데, 스리랑카 극우 승려들 역시 극단적인 반-무슬림 정서를 갖고 있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태국 불교의 국교화 추진 움직임이 단순히 반-무슬림 정서에서만 추동된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태국의 헌법학자 켐텅 통사꾼랑루웡(Khemthong Tonsakulrungruang)은 호주국립대학(ANU) 발행 온라인 저널 <뉴 만달라>(New Mandala)에 기고한 칼럼(2016-1-15)에서, 국교화 움직임이 불교 내부의 모순을 손쉬운 방법으로 타개하려는 시도로 진단했다.

> "태국 불교는 단 한번도 현대화 혹은 이성적 개혁을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태국 사회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은 절대화된 상태이고, 그러한 정설에 대한 도전은 거부되며, 불교 철학도 낡은 사상이 됐다. 주지승들이 축적한 부와 승려들의 저지른 비행들 때문에 '승가'의 약점에 대한 비판도 증가 중이다. 불교는 보다 젊고 비판적인 세대에게 호소력을 얻는 데 실패했다. (중 략) 태국 불교의 약화와 권력 쟁취의 야망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국가적 진흙탕 싸움에서 출현한 징후이다. 불교는 너무 망가졌고, 그 결과 보다 다원화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만큼 약화됐다. 이제 그들은 국가 권력에서 궁극적인 해법을 찾으려 한다. (중 략) 불행하게도 불교 정치가 태국을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있다."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글로브>(Southeast Asia Globe)의 분석(2016-2-11)은 다양한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전하고 있다. 영국 '리즈 대학'(University of Leeds) 정치학 교수 던칸 맥카고(Duncan McCargo)는 최근의 국교화 움직임이 "태국이 절망적인 양극화 정치로부터 탈출할 출구가 없다는 정서"에서 기인한 "집단적인 민족적 불안"의 증가로 파악했다. 그의 이 같은 진단은 동남아 전문 저명 언론인 토마스 풀러(Thomas Fuller)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심층 탐방 기사(2015-11-29) 내용과도 일치한다. 풀러는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일년 반 동안 진행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현장을 취재하여 "타격받지 않는 태국"(Teflon Thailand), 즉 "정정이 불안해도 태국 경제는 괜찮을 것"이란 오랜 신화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좌절감을 생생하게 보고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University of Adelaide) 인류학 교수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는 태국의 도시인들 사이에서 '시골스런 것'(country things)에 대한 향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시 중산층 태국인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시골에 대한 향수를 갖고, 전통의상 착용이나 근교의 별장 구입 등 전원생활을 모방하는 풍조가 생겨났는데, 특히 과거 농촌사회에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불교의 전통적 위상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대중문화의 '태국판 7080 열풍'과 더불어, 좌절된 "자신감"을 소위 "태국다움(Thai-ness)의 징표"인 불교에 집착함으로써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태국인들의 좌절감이 사회 심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태국 불교는 여타 남방불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정령신앙과 각종 미신, 흑마술에 기반을 둔 주술 등 다양한 토착신앙 및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강력한 기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가령 '삭얀'(sak yant, สักยันต์)이라 불리는 전통 문신, 붓다나 고승의 초상화를 삽입해 제작한 '프라 크릉'(พระเครื่อง)이라 불리는 호부(호신용 목걸이), 전통적 기법의 부적 등에 태국인들의 심리적 의존성은 매우 강하며, 이는 상류층이나 고학력 신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영험한" 부적이나 문신을 새기거나 예지력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승려나 도인에게도 '아짠'(ajahn: 선생님, 범어 '아짜리야'의 태국식 발음)이란 호칭이 사용될 정도이다. 승려들과 사찰들은 시주금과 성지순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주술적 요소들 및 고승들의 행적을 우상화하고 상업화한다.

> 참조: 상좌부 불교가 전파되기 전인 5~13세기의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인도로부터 직접 수입된 힌두교와 대승불교가 정착됐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실제의 사찰 문화에는 미륵신앙이나 보살사상도 발견되며, 후대에는 화교들의 이주와 더불어 포대화상이나 관음신앙도 대중성을 얻었다.

이러한 주술적 요인들이 사회적 좌절감과 결합하면 광기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최근 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반려인형 '룩텝'(luk thep: 천사 아기) 신드롬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반-무슬림 정서와 함께 태국의 불교문화가 지닌 이러한 전근대성은 '불교의 국교화' 운동의 또 다른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몇년 간 불거진 마약, 사치, 성매매 등 태국 승려들의 각종 비행과 물신화 풍조는 대중들로 하여금 근본주의 움직임에 친화적으로 만들 우려도 존재한다.

2014년 5월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은 기존의 헌법(2007년 헌법)을 폐지시켰다. 그렇지만 이때 폐지된 헌법도 실은 탁신 정권을 최초로 실각시켰던 2006년 9월의 쿠데타 후 군사정권 감독 하에 제정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은 헌법이었다. 따라서 향후 등장할 신헌법은 <2007년 헌법>보다도 더욱 퇴행적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 사이 군정이 임명한 국가 입법회의(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NLA)와 '헌법초안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 CDC)가 새로운 헌법을 한번 초안했지만, 역시 군사정권이 구성한 '국가개혁회의'(National Reform Council: NRC)가 작년 9월 CDC 작성 개헌안을 부결시키면서 정상적인 정치일정의 복원을 다시 한번 무기한 연기시켰다.

부결된 헌법안은 "전문가들"과 더불어 군부의 고위 장성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가적 위기" 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상원을 부분적으로만 선출직 기구로 만드는 조항도 있어서 많은 이들로부터 비민주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후, 다시금 헌법 초안을 위한 새로운 CDC가 설치됐고, 이 기구는 4월 중으로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금년 7월 중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거칠 것이고, 정상적이고도 민주적인 총선은 빨라야 201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군사정권이 제시하는 신헌법이 기존의 그 어떤 헌법안보다 퇴행적 내용을 갖는 것이라면, 경제정책 실패와 더불어 군정 및 신헌법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불교의 국교화' 운동을 주창하는 세력은 바로 그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헌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계기를 찾고 있다.

절대왕정을 붕괴시킨 군사 쿠데타 '1932년 혁명' 후 제정된 헌법을 시작으로, 태국에서는 그 동안 18차례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불교 및 여타 종교들을 진흥시킬 의무"만을 명문화했을 뿐, 불교를 국가의 공식종교로 지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교는 비공식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각종 헌법들에서 보호받았고, 헌법 조문 내에도 불교 및 불교적 이념의 언급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의례와 관행들을 통해 "사실상의 국교"로서 그 지위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내의 강경파들은 대내적, 대외적 불안감을 '국교화'를 통해 타개하려 시도하고 있다.

## 불교의 국교화 운동과 불교 민족주의

승왕 추대 파동은 '불교의 국교화 운동'이 부상하는 흐름과 겹쳐지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16일 시위 당시, 승왕 지지 단체인 '태국 승가재가동맹'(SBAT)은 "승왕의 조속한 인준" 뿐만 아니라 "불교의 국교화"도 함께 요구했다. 불교 국교화 운동에 부정적인 이들은 군사정권이 국교화를 통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을 군부와 대척점에 선 승왕 지지파가 외쳤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 국교화'의 의제가 태국 정치의 양대 진영 중 어느 한쪽에서만 우세한 주장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최근 불교의 국교화 주장을 선도하는 단체는 '국교로서의 불교 진흥회'(Committee to Promote Buddhism as the State Religion: CPBSR)이다. 그러나 CPBSR이 태국 정치의 양대 진영 중 어느 정파에 더 친화적 성향을 지녔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마도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태국에서, 국교화 주장은 양대 진영 모두에서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불교의 국교화' 주장이 특히 무슬림에 대한 경계심에서 기인했다는 증언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감시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태국지부의 수나이 파숙(Sunai Phasuk) 씨는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회견에서 "[태국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의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통상 2가지 요소가 언급된다. 하나는 2004년 이후 태국 최남단 3개 도에만 국한해서 진행 중인 무슬림 무장반군 소요사태로서, 지난 10년간 6천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됐다. 무슬림 소용사태는 무슬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는다는 정서에서 출발했다. 여러 반군 단체들은 그 실체가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태국 정부가 누구를 협상 대상자로 삼아야 할지도 모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지방 주류인구인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자치권 요구는 모든 반군의 공통점이다. 반군들은 주로 군인, 교사, 공무원을 공격대상으로 삼는데, 불교 승려들 역시 태국의 체제적 상징으로 보아 공격대상으로 삼는다.

다른 하나는 이웃국가인 미얀마에서 반-무슬림 불교 근본주의가 급성장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다. 미얀마에서는 특히 위라투(Wirathu: 1968년생)라는 저명 극우 승려가 '969 운동'이라는 급진적 버마 민족주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군사정부의 묵인 하에 범-무슬림 인구에 대한 학살, 방화,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특히 미얀마 서부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로힝야족(Rohingya people)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해, 동남아시아 바다에 지중해 난민 사태보다 규모가 큰 보트피플 물결과 국제 인신매매 파동을 출현시켰다. '969운동'의 흐름은 보다 체계적인 단체 '마바타'(Ma Ba Tha: 인종종교수호위원회)로 이어졌고, 정부로 하여금 친-불교 반-무슬림 법안을 제정토록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태국 불교계에도 최근 미얀마의 사례를 모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얀마의 불교 근본주의자들과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참조: 미얀마 극우 승려들은 스리랑카 극우 승려들과 빈번한 교류를 갖고 있는데, 스리랑카 극우 승려들 역시 극단적인 반-무슬림 정서를 갖고 있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태국 불교의 국교화 추진 움직임이 단순히 반-무슬림 정서에서만 추동된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태국의 헌법학자 켐텅 통사꾼랑루웡(Khemthong Tonsakulrungruang)은 호주국립대학(ANU) 발행 온라인 저널 <뉴 만달라>(New Mandala)에 기고한 칼럼(2016-1-15)에서, 국교화 움직임이 불교 내부의 모순을 손쉬운 방법으로 타개하려는 시도로 진단했다.

"태국 불교는 단 한번도 현대화 혹은 이성적 개혁을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태국 사회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은 절대화된 상태이고, 그러한 정설에 대한 도전은 거부되며, 불교 철학도 낡은 사상이 됐다. 주지승들이 축적한 부와 승려들의 저지른 비행들 때문에 '승가'의 약점에 대한 비판도 증가 중이다. 불교는 보다 젊고 비판적인 세대에게 호소력을 얻는 데 실패했다. (중 략) 태국 불교의 약화와 권력 쟁취의 야망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국가적 진흙탕 싸움에서 출현한 징후이다. 불교는 너무 망가졌고, 그 결과 보다 다원화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만큼 약화됐다. 이제 그들은 국가 권력에서 궁극적인 해법을 찾으려 한다. (중 략) 불행하게도 불교 정치가 태국을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있다."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글로브>(Southeast Asia Globe)의 분석(2016-2-11)은 다양한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전하고 있다. 영국 '리즈 대학'(University of Leeds) 정치학 교수 던칸 맥카고(Duncan McCargo)는 최근의 국교화 움직임이 "태국이 절망적인 양극화 정치로부터 탈출할 출구가 없다는 정서"에서 기인한 "집단적인 민족적 불안"의 증가로 파악했다. 그의 이 같은 진단은 동남아 전문 저명 언론인 토마스 풀러(Thomas Fuller)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심층 탐방 기사(2015-11-29) 내용과도 일치한다. 풀러는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일년 반 동안 진행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현장을 취재하여 "타격받지 않는 태국"(Teflon Thailand), 즉 "정정이 불안해도 태국 경제는 괜찮을 것"이란 오랜 신화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좌절감을 생생하게 보고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University of Adelaide) 인류학 교수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는 태국의 도시인들 사이에서 '시골스런 것'(country things)에 대한 향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시 중산층 태국인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시골에 대한 향수를 갖고, 전통의상 착용이나 근교의 별장 구입 등 전원생활을 모방하는 풍조가 생겨났는데, 특히 과거 농촌사회에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불교의 전통적 위상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대중문화의 '태국판 7080 열풍'과 더불어, 좌절된 "자신감"을 소위 "태국다움(Thai-ness)의 징표"인 불교에 집착함으로써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태국인들의 좌절감이 사회 심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태국 불교는 여타 남방불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정령신앙과 각종 미신, 흑마술에 기반을 둔 주술 등 다양한 토착 신앙 및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강력한 기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가령 '삭얀'(sak yant, สักยันต์)이라 불리는 전통 문신, 붓다나 고승의 초상화를 삽입해 제작한 '프라 크릉'(พระเครื่อง)이라 불리는 호부(호신용 목걸이), 전통적 기법의 부적 등에 태국인들의 심리적 의존성은 매우 강하며, 이는 상류층이나 고학력 신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영험한" 부적이나 문신을 새기거나 예지력을 지녔다고 믿

등에 전통문신(삭얀)을 새긴 태국 승려

어지는 승려나 도인에게도 '아짠'(ajahn: 선생님, 범어 '아짜리야'의 태국식 발음)이란 호칭이 사용될 정도이다. 승려들과 사찰들은 시주금과 성지순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주술적 요소들 및 고승들의 행적을 우상화하고 상업화한다.

참조: 상좌부 불교가 전파되기 전인 5~13세기의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인도로부터 직접 수입된 힌두교와 대승불교가 정착됐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실제의 사찰 문화에는 미륵신앙이나 보살사상도 발견되며, 후대에는 화교들의 이주와 더불어 포대화상이나 관음신앙도 대중성을 얻었다.

이러한 주술적 요인들이 사회적 좌절감과 결합하면 광기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최근 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반려인형 '룩텝'(luk thep: 천사 아기) 신드롬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반-무슬림 정서와 함께 태국의 불교문화가 지닌 이러한 전근대성은 '불교의 국교화' 운동의 또 다른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몇년 간 불거진 마약, 사치, 성매매 등 태국 승려들의 각종 비행과 물신화 풍조는 대중들로 하여금 근본주의 움직임에 친화적으로 만들 우려도 존재한다.

2014년 5월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은 기존의 헌법(2007년 헌법)을 폐지시켰다. 그렇지만 이때 폐지된 헌법도 실은 탁신 정권을 최초로 실각시켰던 2006년 9월의 쿠데타 후 군사정권 감독 하에 제정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은 헌법이었다. 따라서 향후 등장할 신헌법은 <2007년 헌법>보다도 더욱 퇴행적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 사이 군정이 임명한 국가 입법회의(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NLA)와 '헌법초안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 CDC)가 새로운 헌법을 한번 초안했지만, 역시 군사정권이 구성한 '국가개혁회의'(National Reform Council: NRC)가 작년 9월 CDC 작성 개헌안을 부결시키면서 정상적인 정치일정의 복원을 다시 한번 무기한 연기시켰다.

부결된 헌법안은 "전문가들"과 더불어 군부의 고위 장성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가적 위기" 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상원을 부분적으로만 선출직 기구로 만드는 조항도 있어서 많은 이들로부터 비민주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후, 다시금 헌법 초안을 위한 새로운 CDC가 설치됐고, 이 기구는 4월 중으로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금년 7월 중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거칠 것이고, 정상적이고도 민주적인 총선은 빨라야 201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군사정권이 제시하는 신헌법이 기존의 그 어떤 헌법안보다 퇴행적 내용을 갖는 것이라면, 경제정책 실패와 더불어 군정 및 신헌법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불교의 국교화' 운동을 주창하는 세력은 바로 그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헌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계기를 찾고 있다.

절대왕정을 붕괴시킨 군사 쿠데타 '1932년 혁명' 후 제정된 헌법을 시작으로, 태국에서는 그 동안 18차례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불교 및 여타 종교들을 진흥시킬 의무"만을 명문화했을 뿐, 불교를 국가의 공식종교로 지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교는 비공식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각종 헌법들에서 보호받았고, 헌법 조문 내에도 불교 및 불교적 이념의 언급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의례와 관행들을 통해 "사실상의 국교"로서 그 지위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내의 강경파들은 대내적, 대외적 불안감을 '

국교화'를 통해 타개하려 시도하고 있다.

## 좌절한 양극화 사회의 기성 종교가 벌이는 현실 정치의 대리전

### 되살아나는 불씨와 왕위계승전쟁

2014년 5월 쿠데타 후 태국 사회의 역동성은 떨어졌지만, 군정의 공포정치 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 강력한 세력을 지닌 반-군부 반-기득권 친-탁신 세력의 움직임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가 깨지려 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최근 들어 국제적인 언론들과 연속적인 회견을 갖거나, 미국을 방문해 강연하면서 군정의 신헌법 제정 계획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친-탁신 진영의 군부 원로이자 전직 총리이기도 한 차왈릿 용짜이윳(Chavalit Yongchaiyudh: 1932년생) 장군은 3월13일(일)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국의 갈등상황을 끝낼 '제3의 세력'을 준비 중"이란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100만명의 소수민족과 1천만명의 빈곤층에서 유사시 동원할 20~30만명의 병력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병력이 "비무장"이지만 갈등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민심을 추스르는 데 동원될 것이라면서, 군정이 협상을 해온다면 요청에 응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태국 군 전체 병력이 20여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왈릿 장군이 제시한 병력 규모는 엄청난 것이다. 또한 친-탁신 진영 내에서 차왈릿 전 총리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그의 발언이 탁신과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군사정권은 탁신의 발언 소식을 "개가 사람을 문 뉴스"라거나, 차왈릿 장군을 "한때 영화를 누렸던 절간 앞에 앉은 늙은 개"라는 식으로 비하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지만, 태국 정치가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탁신 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총선을 2017년 이후 실시하려는 군정의 정치일정을 순순히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태국의 양대 진영이 벌이는 정치적 갈등은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봉건 지배체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주의 문화가 맞부딪히는 세계관의 충돌인 동시에, 태국 사회를 오랜 기간 지배해온 수구적 기득권 세력과 신흥재벌 및 노동자/농민 연합세력 사이의 사회경제적 투쟁이기도 하다. 또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북부지방과 고무농사 및 수산업에 기반을 둔 남부지방 사이의 지역 대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태국의 정치 갈등은 왕위계승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술에서 벤치마킹한 우상화 정책과 가혹한 왕실모독법을 동원한 여론통제의 덕분이긴 하지만, 그 동안 거의 신적인 추앙을 받아오던 푸미폰 국왕이 2009년 이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금치산자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국은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국이지만, 모든 권위가 국왕에게서 나오는 유사-절대왕정 국가이다. 더욱이 왕실은 최대 기업집단 '시암시멘트 그룹'(SCG)을 비롯하여, 막대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들을 보유한 태국 최대 부호이기도 하다. 왕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사실상 태국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며, 그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권력, 특히 군부 내 이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따라서 거의 70년간 재위해온 푸미폰 국왕이 사망할 경우, 태국의 모든 권력관계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국왕의 사망과 최소 일년 이상의 장례식, 그리고 새로운 국왕의 즉위과정은 태국사회 미래 권력의 물적, 정신적 토대를 재결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 기간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현재 태국 정치가 당면한 과제이다. 지난 수십년간 왕실 권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은 시리낏(Sirikit: 1932년생) 왕후였고, 현 군부의 주류(제21연대 파벌) 역시 그녀의 후원 하에 성장했다. 하지만 왕후 역시 2012년 뇌졸증으로 쓰러진 후 푸미폰 국왕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태국의 기득권 세력이 탁신을 반대했던 커다란 원인 중 하나는 탁신과 마하 와치라롱꼰(Maha Vajiralongkorn: 1952년생) 왕세자의 유착 때문이었다. 와치라롱꼰 왕세자는 젊은 시절부터 여성편력과 기행을 일삼아왔고, 예측불가의 폭력성도 보여줬다. 현 왕조인 '짜끄리 왕조'(Chakri dynasty)에는 개국 초기부터 "라마 9세로 왕조의 수명이 다할 것"이란 예언이 전설처럼 전해진다. 푸미폰 국왕이 바로 라마 9세이고, 만일 와치라롱꼰 왕세자가 즉위한다면 그는 라마 10

세가 된다. 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 같은 예언은 주술적 힘을 신봉하는 태국 국민들에게 "종말론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앤드류 맥그레거 마샬(Andrew MacGregor Marshall)은 2013년에 공개한 자신의 논문 <"깔리육", 태국의 광기시대 : 왕위계승과 정치위기>(กลยุค – Thailand's Era of Insanity)를 통해 이 시대 태국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물론 그의 논문과 이후 발행된 단행본은 태국 최대의 금서가 됐고, 마샬 역시 태국의 일급 수배자로 등록됐다.

> 참조: 태국 정치 연구의 최대 난점 중 하나는 왕실모독법의 영향으로 정보의 부족 및 진실을 말해주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폭로된 미 대사관 외교전문들을 철저히 분석한 앤드류 마샬의 연구는 태국 정치에 관한 그 이전의 대부분 연구들을 거의 무가치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마샬의 논문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태국의 기득권 세력은 지난 수십년간 왕세자의 등극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군사정권이 주도하는 행사들을 살펴보면, 태국 군부와 기득권 세력은 왕세자와 타협을 하고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는 탁신 진영의 반격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 태국 불교의 정치화, 그 뿌리깊은 전통

승왕 추대를 둘러싼 갈등이 현실 정치의 완벽한 대리전이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태국 불교의 정치화는 비단 최근의 경향만은 아니다. 태국 사회에서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관한 담론이나 연구는 금기시되는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태국 불교의 정치화는 유서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근대 이전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신왕'(deva-raja, 神王) 사상을 통해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고, 봉건체제의 일부로서 특히 기초 교육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태국 승단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적 통제 하에 들어간 것은 몽꿋(Mongkut, 라마 4세: 1804~1868, [재위] 1851~1868) 국왕의 시대였다. 몽꿋 국왕은 즉위 전 27년간 승려였고 저명한 불교학자로서 불교의 개혁에도 노력했지만, 승단의 행정조직을 지방 단위까지 확대하면서 중앙집권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흐름은 쭐라롱꼰(Chulalongkorn, 라마 5세: 1853~1910, [재위] 1868~1910) 국왕 시대인 1902년에 최초의 <승단법>(Sangha Act)이 제정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승단의 제도적 형식이 완성됐다. 승단의 근대화는 국가권력에 이념적, 영적 근거를 제공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승려들의 사회적 특권을 보장받는 관계를 더욱 공식화한 것이다.

일부 전통적인 태국 승려들이 보다 본격적인 정치 승려로 탈바꿈한 것은 1932년 혁명 이후의 일이다. 이후 태국이 19회에 달하는 쿠데타를 겪을 때마다 새로운 실세 정치인들이 탄생했고, 그러한 정치인들과 유착을 강화하는 승려들도 등장했다. 특히 공산 반군이 활동했던 1970년대 냉전기에는 불교계 내에서도 이념투쟁이 극에 달했고, 지도급 정치 승려들도 탄생했다. '쭐라롱꼰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정치학 교수였던 솜분 숙삼란(Somboon Suksamran)이 1982년에 출판한 <태국 불교와 정치: 태국 승단 내부의 사회정치적 변화와 정치적 행동주의 연구>(Buddhism and Politics in Thailand: A Study of Sociopolitical Change and Political Activism in the Thai Sangha)는 방대한 문헌자료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태국 승단의 정치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 보기 드문 연구에 속한다. 특히 1970년대 승단 내부의 이념투쟁에서 "공산주의자를 죽이는 것은 악업이 아니다"라는 구호까지 등장하는 데 이르면, 최근 태국 불교계에 나타난 정치적 광기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란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태국 정국은 다시금 불확실성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중인 승왕 추대 파동은 그 최종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불교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교의 국교화' 주장은 사태의 전개에 더욱 큰 안개를 드리우며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중이다. 다만, "국가 종교(불교) 국왕"을 국가 구호로 내세우는 태국에서, 정치가 동요하면 종교도 동요할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대회, 북한은 새로워지나?

이창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연구교수

※편집자 주 : 본 매거진은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대회에 대한 분석과 향후 한반도 정세전망에 관한 심층분석기사를 연재합니다. 노동당대회의 의미와 결정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예측, 한반도와 그 주변국의 대응패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3주마다 순서대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❶ 북한 노동당대회 주요 결정사항 스케치
❷ 북한(김정은)의 통치스타일에 변화가 오는가?
❸ 국제노선, 핵노선의 향방
❹ 남북관계 변화에 틈은 있는가?
❺ 향후 북한의 행동맥락(패턴)을 읽는 키워드는?

북한 노동당 대회 (출처: Wbur.org)

## ① 북한 노동당대회 주요 결정사항 스케치

2016년 5월 노동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렸다. 이번 당대회에는 모두 3,667명이 참석하였다. 이로써 현재 북한의 당원이 몇 명일까라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조선중앙TV>에서 "각급 당 대표회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여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여"하였다고 전했다. 1980년 6차 노동당대회에는 총 3,220명이 참석하여, 추정된 당원이 320만여 명이었다. 당원 1000명 당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당대회에 참석시키기 때문이다.

당시 인구는 1,729만여 명으로, 당원이 인구의 18.6%를 차지하였다. 현재 북한의 당원은 360만여 명으로 추산되어, 2,458만 명의 북한 인구에서 14.8%를 차지한다. 예전보다 전체 인구에서의 당원 비율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인구 6.7명 당 1명으로 많은 당원을 지닌 노동당의 나라가 북한이다. 참고로 현재 중국은 인구 13억여 명에서 공산당원이 9,000만여 명, 쿠바는 인구 1,100만여 명에서 공산당원이 100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미 예견되고 있었던 7차 당대회?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7차 노동당대회가 북한의 당 창건 70돌을 맞이하는 2015년에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국면과 맞물려서 안보 강화와 경제개혁 조치가 담긴 청사진이 7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견은 2016년 러시아의 5월 전승절 행사와 중국의 9월 전승절 행사에 버금가도록 준비한 2만여 명의 군인과 10만여 명 군중이 참여한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열병식으로 대체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열병식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작년 10월 30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올해 5월 초순 열린다고 발표하였다. 다음날 〈로동신문〉 사설에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대강을 제시하며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총진군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발표된 7차 노동당대회는 연기설까지 나돌았다. 당 대회 준비 기간인 올해 1월 6일에 북한 주장대로 '수소탄시험'까지 했으니, 연기설이 나돌만한 소재들은 충분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명의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 6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된 후 연기설은 사라졌다.

이번 7차 노동당대회는 사실상 작년 당창건 70돌 기념 열병식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군정치를 실행하고 있는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사회주의 수호를 다짐하는 동시에, 7차 당대회를 향한 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리고 '70일 전투' 등 대대적인 반년 간의 준비를 통해서 36년 만의 당대회를 2016년 5월에 개최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진행과정은 비록 군사행진, 준비기간 등 본 대회까지의 긴 여정은 없었지만, 2011년 열린 쿠바의 제6차 공산당대회와 조금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소련 붕괴 이후 경제난을 겪었던 쿠바도 1997년 5차 공산당대회 이후에도 경제상황이 계속 개선되지 않자,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당대회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14년 만에 공산당 대회를 열었다. 2011년이 쿠바의 사회주의 국가 선언 50주년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쿠바는 공산당 대회의 사전 행사로 사회주의 국가 선언과 미국의 피그만 침공 격퇴 50주년을 동시에 경축하는 대규모 군사행진을 진행하였다. 본 대회에서는 피델 카스트로는 친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공산당 제1서기 직책을 물려주었고, '진부한 도그마와 기준'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면서 외국기업 유치 및 민간 협동조합 역할 증대, 자동차와 주택 매매 허용 등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2011년 쿠바 제6차 공산당 대회의 핵심 기조는 쿠바 사회주의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었다.

## 북한은 왜 7차 당대회를 했던 것일까?

일각의 사람들은 "북한이 왜 당대회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본래 당대회에서는 당의 사업을 총화하고, 강령과 규약을 채택·수정하거나, 당의 노선과 정책을 토의, 결정하면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크게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당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은 1985년까지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실현하고, 1987년 7차 당대

회를 개최하려 하였지만,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아서 당대회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최근 북한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번 7차 당대회 취재차 평양에 방문한 40여 개국 174명의 외신기자들도 정작 당대회를 취재하지 못해서 북한 당국에 놀아났다고 분개하였지만, 평양의 거리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였다. 한국은행에서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 수준으로 북한이 경제 성장했다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과거 당대회에서는 주로 경제적 성과를 총화하고, 새로운 경제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7차 당대회에서는 그러한 양적인 총화나 양적인 경제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북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이번 당대회의 목적에 대해서 집권 5년차 안정기를 맞이한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공식적인 국가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012년 4월에 열렸던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노동당 제1비서로 김정은의 집권을 공식화하였다. 따라서 셀프대관식이라고 평가되는 7차 당대회의 '지도자 선출'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7차 당대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서 과거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출처:북한·동북아연구센터, "북한7차당대회 내용과 향후전망,"「NK Issue & Analysis」No.2016-04 (서울:한국수출입은행,2016), p. 1.

## 다시 등장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치!

북한은 과거 인터내셔널가를 연주했던 것과 달리, 7차 노동당대회에서는 애국가를 연주하였다. 이는 곧 제2의 건국을 위한 다짐이며, 7차 노동당대회의 핵심 목적이었다. 이미 북한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노동신문> 5월 4일자 정론에서 "우리는 누구였으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눈보라, 불바다길을 헤쳐왔던가"라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7차 당대회의 핵심 보고 내용은 '선군과 핵무력을 통한 체제 수호'였다. 사회주의권 몰락과 경제난, 국제 제재 속에서도 살아온 북한은 스스로 이번 당대회를 통해 제2의 건국 의지를 다지며, 사수한 체제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사회주의 당-국가의 정상적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등장한 구호가

당대회의 결정서에 담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기치인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1998년부터 북한에서 많이 회자된 '사회주의 강국'과 동일시하였다. 나아가 80년대에 제시된 북한 사회의 궁극적 목표였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시켰다. 이로 인해 7차 당대회에 대한 평가는 더욱 '과거로의 회귀', '보수화'로 일색화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에는 변화란 없었을까?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쿠바의 6차 공산당대회에도 경제개혁의 내용이 담겼다. 물론 올해 북한보다 한 달 앞서 4월에 열린 쿠바의 제7차 공산당대회에서 미국과의 수교에 따른 개혁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때보다 경계해야 한다"며, '자본주의의 부활'을 반대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선언하였다. 세인의 예상과 달리 개혁심화의 7차 공산당대회가 아니라, 속도조절의 7차 공산당대회가 되었던 것이다.

과연 북한의 7차 당대회는 보수적인 대회였을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개혁적 변화의 내용이 담겼던 것일까?

# 왜 국제 불교계는 CO2 350ppm 목표를 지지하는가?

민정희 ▌INEB 이사, 아시아불교씽크탱크 사무총장

##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한 195개국 정부대표들은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한편,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 억제를 목표로 노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협약에 합의하였다.

1997년 합의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행된 교토의정서 체제가 유럽, 미국, 러시아, 호주 등 서구산업국 37개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던 반면, 파리기후협약은 처음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즉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의 99%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1994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조인된 지 실로 20 여 년 만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지구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 1.5도 상승 이하 억제를 목표로 하고, 섭씨 2도 상승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행 메커니즘의 한계, 손실과 피해보상에 대한 메커니즘의 부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과감한 목표 설정임은 분명하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1.5도씨 제한을 요구했고, 2도 상승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를 마샬제도,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도씨 제한을 결의했던 2009년 코펜하겐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다.

UN기후총회가 1.5도 상승 억제라는 목표에 합의하기까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군소도서국들과 최빈곤 국가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1.5도 상승만으로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하고, 지역의 식량안보가 아주 심각해지며 특히 아프리카에서 주식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파리기후협약은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2도씨 이상의 기온상승이 작은 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과 같은 해안도시까지 잠기게 할 것이며, 폭염, 산불, 폭우, 가뭄이 더 일반화될 것이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당초 1.5도 목표를 반대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꿔 1.5도 목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미국은 1.5도 목표를 지지한 대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기금 증액이나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에서는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12월 10일 파리기후총회 협상장에서 '손실과 피해' 부분이 제기되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차별화나 재정의무를 이야기한다면 선진국은 협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 피해국의 피해보상, 예를 들어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 주민들의 이주 지원 등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협약에 삽입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상원으로부터 협약에 대한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기후변화에 가장 큰 원인 제공자들이, 기후변화에 아무 책임이 없으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군소도서국, 취약국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불교사상,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파리기후총회에서 1.5도 목표에 합의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공은 국제종교계와 시민사회에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18일,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골자로 한 회칙을 발표한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이 가장 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을 발표한 직후부터 도미노처럼 세계 이슬람, 불교, 힌두교 지도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성명서와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종교계의 성명서는 모두 산업화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 1.5 상승의 제한을 요구했다. 종교계의 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예년의 기후총회에 비해 수십 배의 숫자에 달하는 종교인사들이 총회에 참석했고, 기도와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파리까지 기후여정을 조직했다.

더불어 주요 종교계 인사들은 종교계가 발표한 성명서와 입장문을 UN기후변화협약(FCCC)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사무총장과 파리기후총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올랑드(Holland)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 가운데 스리랑카의 승려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세리시나(Serisina) 스리랑카 대통령의 자문 자격으로 UN기후총회에 참석한 라따나(Rathana) 테로는 국제불교계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한 성명'과 '선언문 : 행동할 때는 지금" 두 가지를  올랑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 신자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이미 세계적인 인사가 된 예브 사노(Yeb Sano) 필리핀 정부의 前 기후변화담당관이 함께 했다.

라따나 스님이 올랑드 대통령에게 전달한 불교계의 기후변화 선언문과 성명서는 UN기후총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10월 29일 발표되었다. 성명서는 새로 작성된 것이지만 선언문은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고 국제불교구호단체 International Buddhist Relief의 대표이자 미국불교도연합의 의장인 비구 보디(Bhikkhu Bodhi) 스님, 미국의 불교학자 데이비드 로이(David Loy), 존 스탠리(John Stanley) 등이 2009년 작성하여 발표한 것을 약간의 내용 수정을 거쳐 다시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에는 달라이라마, 까르마파와 같은 세계적인 티베트 불교지도자와 플럼 빌리지의 틱 낫한 스님, 비구니를 대표하여 텐진팔모 스님, 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의 불교교단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들, 미국과 프랑스 불교도연합 대표 등 500여 승재가 지도자들이 서명하였다. 성명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의 상승을 1.5도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는데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불교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태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다룬 선언문 "행동할 때는 지금"에서 불교지도자들은 "인류는 우리의 공업(共業)이 만든 엄청난 생태적 위기에 살고 있다. (중략) 인류는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불교지도자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해서 불교가 지닌 자산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다. (중략)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재난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마음의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성제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며 사성제를 비롯한 불교사상이 현재의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더 나아가 선언문은 "개인의 고통이 탐진치 삼독 중에서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집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고통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중략)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자아의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며 생태위기 해결을 위해서 연기적 세계인식의 필요성, 탄소발자국을 줄여나가는 개인의 행동과 경제제도의 변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비구 보디스님은 12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표된 직후 발표한 글에서 "기후변화 위기는 도덕적, 정신적 차원의 시스템 위기"라며, "기후변화는 가치전도의 한 모습이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배적인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가장 분명한 왜곡을 볼 수 있다. (중략) 기후변화는 사회정의 규범의 위반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 국제불교계 CO2 농도 350ppm 유지 촉구

한편, 지구평균 기온 상승 1.5도 유지만을 강조한 다른 종교계의 선언과 달리 불교계의 선언문은 "인간문명이 지속가능하려면 대기 중 안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 ppm 이하여야 한다."고 밝힌 점에서 매우 과감했다. 그런데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1958년 온실가스를 관측한 이래 처음으로 2015년 3월, 지

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 ppm을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불교지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이미 400 ppm을 넘어섰고, 매년 2ppm 씩 상승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 며,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다량의 탄소가스를 제거해야 한다. (중략) 350ppm 목표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제불교계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연구소(Godard Institute)에 재직 기간 중 1988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정치 의제화하고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한 제임스 핸슨((James Hansen) 박사의 주장에 근거한다.

제임스 핸슨은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400ppm 농도에서도 위험한 수준의 가뭄, 폭염, 태풍, 폭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수명이 수 십 년에서 수 천 년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만으로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12월 제임스 핸슨, 요한 록스럼 등 15명의 세계적인 기후과학자들은 탄소농도가 350ppm 정도 되어야 지구가 안전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미 대기 중에 축적된 탄소농도 때문에, 지구 평균온도를 3-4까지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탄소농도를 350ppm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기술과 재정이 이미 있다며,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파리기후총회에 참석한 제임스 핸슨 박사는 “2도 제한은 책임 있는 목표가 아니다. 1도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5도, 2.0도가 아니라 탄소농도를 500기가톤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파리기후협약 만으로는 파국 멈출 수 없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약이 탄생했음에도 파리기후협약은 여러 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억제하기로 하였지만, 각 국 정부가 기후총회에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목표(INDCs)'를 종합해보면 지구온도를 21세기 중반까지 2~3도 높일 것이라는 것이 기후전문가들 대다수의 전망이다. 또한 각 국 정부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구속력 있는 이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년마다 각국의 감축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목표를 재조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섭씨 1도 상승한 상황이지만, 너

무 덥고 위험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2030년이 되기도 전에 2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대표적인 기후운동 단체인 350.org의 설립자 빌 맥키번(Bill McKibben)의 전망은 더욱 더 암울하다. 그는 "현재 대기 중에 잔존하는 온실가스 농도만으로도 4-5도 상승할 수 있다"며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기후 협약 타결로 세계가 저탄소 시대로 갈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나 빨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빌 맥키번은 제임스 핸슨과 뜻을 같이 한다.

그런데 최근, 제임스 핸슨이나 빌 맥키번 같은 이들이 말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 중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올해 2월 지구표면 온도가 1951-1980년까지 30년간 2월 달 평균온도보다 섭씨 1.35도 높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880년 지구 표면온도를 분석한 이래 평균치 대비 상승폭이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나사의 보고서 발표를 두고, "나사가 폭탄을 던졌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작년, 올해에 걸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온도상승은 이례적이다. 이에 독일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스테판 람스토르프 교수는 "이제 우리는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런던 정경대학 그랜담 기후변화연구소의 봅 워드(BoB Ward)도 "지난 5개월 동안 매달 전 세계가 그 전의 어느 달보다 더 더웠다"며 "이는 매우 우려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기후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과감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속도를 늦춘다면 21세기 중반이 되기도 전에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영향도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4월 22일 UN 뉴욕 본부에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확인하고 저탄소 이행에 대한 약속을 다짐하는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파리기후협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4월 22일 조인 행사 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점하는 55개국의 의회가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2월 중순 현재 피지만이 협약에 비준한 상태다.

# 매스 미디어, 권력 그리고 조작 의혹

유승무 | 중앙승가대 교수, 신대승네트워크 트랜드&리서치센터 대표

## 불교계 매체 통제는 미디어 조작의혹 받는 일

최근 일부 불교계 인터넷 매체에 대한 종회 차원의 통제와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강한 반발들이 이어지면서, 통제 대상 매체는 물론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불신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불교계 수용자에게는 믿을만한 대안의 정보원이나 제 3의 정보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혹이 심화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불교계의 커뮤니케이션 전체가 불신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불교커뮤니케이션의 불신 축적은 도반이나 법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하나의 사회 혹은 집단으로서 불교사회의 해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불교계의 언론 사태(혹은 그 전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즉 최근 불교 언론 사태와 그 전개를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은 사람 수만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와 연관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번 특집의 또 다른 지면에서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 혹은 암시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서 해결책으로 어이지는 이른바 '붉은 실(red thread)'이 바로 매스 미디어 조작에 대한 의혹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전제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매스 미디어의 조작 혹은 조작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스 미디어 조작 혹은 조작의혹은, 미디어 자신의 권력이든 외부의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이든,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일반 이론적 차원에서 매스 미디어 조작 문제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논의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글의 '붉은 실'과 관련하여 경험적 차원에서 불교계 미디어의 실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전 논의에 기초하여 최근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 조작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미디어 조작과 권력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TV에서 본 것이나 신문에서 읽은 것이 100% 정확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 불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불신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 글의 '붉은 실'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권력, 즉 매스 미디어 외부의 권력과 매스 미디어 자신의 권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정치인은 각종 매스 미디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력을 통하여 그리고 자본가들은 매스 미디어의 실질적인 물적 토대인 광고비의 지불 능력이라는 경제력을 통하여, 매스미디어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매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정치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시도를 서슴치 않으며, 자본가들은 광고비의 지불 댓가로 얻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둘째는, 오늘날 제 3 의 권력으로 등극한 매스 미디어가 자신의 상징권력을 활용하여 정보를 조작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스 미디어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을 직접 활용하여 수용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반면에 별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없는 수용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이상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는 다르겠지만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다소 조작의 의심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 취약한 불교 미디어의 현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매스 미디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것은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의 경우, 자신이 가진 정치적 권력이 매우 약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 권력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정보를 조작하거나 강요할 역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불교계 매스미디어는, 조작의 역능은 커녕 언론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 즉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작성(기사화)·편집하여 신속하게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전달기능조차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정보(information)란 발표되는 순간 곧바로 비정보(non-information)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뉴 미디어 시대에 모든 정보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현 단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 주간지로 발행되는 불교계의 신문은 사실상 비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른다. '불교언론의 위기', '불교언론의 암담한 현실', '오늘의 참담한 언론상황' 등과 같은 표현이 암시하듯이, 불교계에 회자되는 각종 불교 언론 위기담론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허약한 불교 미디어 권력은 한편으로는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가 자신의 독립성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다양한 정치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몇 해 전 불교언론인 모임인 인사클럽이 자신의 선언문에, "언론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정론(正論)'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직필(直筆)'의 기개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는 공감이 팽배합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것도, 이번 불교 언론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 탄압', '언론 자유'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 것도 그 증거로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불교 언론 사태도 정치권력(총무원 및 종회 권력)이나 경제권력(사주나 사찰 주지)이 매스 미디어에 쉽게 침투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최소한,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은 미스 미디어 자신의 상징권력에 의한 조작보다는 외부의 권력에 의한 조작 의혹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최근 불교계 언론 사태와 그 전개는 오히려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또 한 켠의 불신만을 덧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권력에 의한 조작 이외에도 매스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에는 불가피한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내재되어 있기도 있다.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실재(reality)조차도 2차적으로 가공된 구성물 - 저명한 사회학자 루만(Luhmann)은 이를 '2차 질서 관찰'의 결과라 부른다 -이기 때문이다. 이는 매스 미디어가 구성하는 실재(實在)가 실제(實際)는 아님을 의미한다. 실제로 매스 미디어는 전체 실재 중에서 자신이 관찰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편집하여 정보로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모든 매스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불신 및 불만의 의혹을 항상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매스 미디어가, 언론의 생명줄인 자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저널리즘의 순수성을 간직하면서, 자기준거적으로 자기생산 및 재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를 루만은 Autopoiesis란 부른다 -. 그럴 때 혹은 그렇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 체계는 '자기준거적'이란 표현이 시사하듯이 자신의 작동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산 및 재생산'이란 표현이 암시하듯이 자신의 관찰 결과를 기술(記述)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매스 미디어가 성찰적 자기기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외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매스 미디어 내부의 자율적 작동에 개

입하지는 못한다는 사회체계의 기본적 속성이 나래를 펴기를 간절히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야말로 매스 미디어 조작 의혹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다.

## 조작의혹을 넘어 신뢰로

최근 불교계 커뮤니케이션은 정상 궤도를 크게 이탈한 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하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웅변하듯이, 현대사회는 이미 정보화시대를 지나 이른바 4 차 산업혁명 시대 즉 융합문명의 시대로 진입한지 오래인데, 불교계의 케뮤니케이션은 지금도 여전히 역주행만 하고 있다. 정치, 법률, 교육, 종교, 경제, 미디어 와 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기능체계 중에서 경제체계와 미디어 체계가 가장 빠른 발전속도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실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회학자들의 진단을 고려하면, 최근 불교 언론 사태는 불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비록 매체의 소통 기술(技術)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생명은 사회성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나 집단 속의 사회성의 발달이야말로 매스 미디어의 발전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지속과 속행을 보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불교 언론 사태는 가능한 한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인가? 앞선 논의에 기초할 때,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불교 매스 미디어의 역량을 키우고 매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특히 정보 기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 나아가 불교계의 매스 미디어가 스스로 뉴스 벨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정보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성찰의 제도화를 통해 스스로 성찰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래서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회복한다면, 비록 어느 정도의 조작 의혹은 수반된다 하더라도, 수용자들은 불교 매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불교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집단 혹은 사회로서 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명상이 필요한 시대 1
##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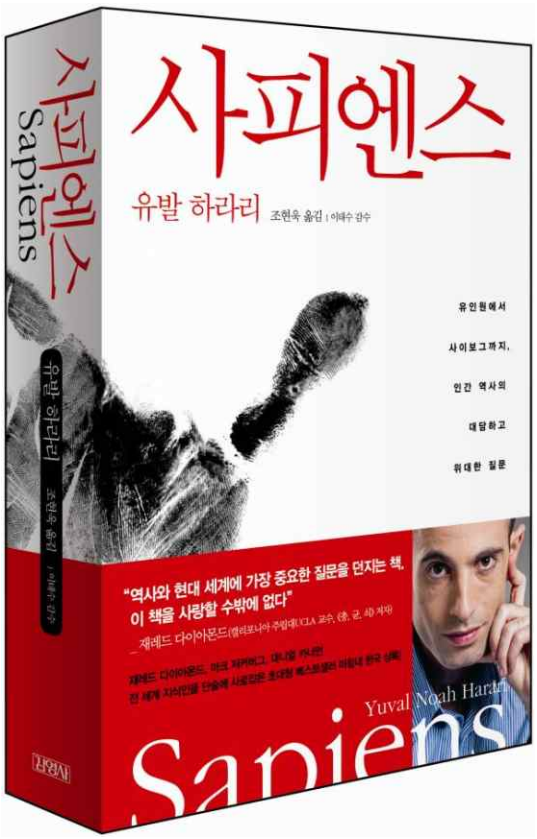
강민지 ▌붓다클래스 공동대표, 절오빠절언니 운영진, e-매거진 편집위원

※ 편집자 주: 인문학 열풍의 다음으로 명상의 전성기가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를 어느 기사에서 읽었다. 외국의 여러 큰 기업들에서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 한국의 기업들도 점차 명상의 가능성을 눈여겨 볼텐데, 불교계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아예 대기업들이 명상 시장에 뛰어들지도 모른다. 위기가 기회이듯, 기회는 위기다. 명상 열풍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전해지기보다, 겉모습만 명상인 것들이 대중에게 퍼질 위험도 있다. 한국 불교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야 할까? 이 생각과 고민들을 3편의 글에 담아보려고 한다.

[1] 명상이 필요한 시대,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명상

[2] 한국의 명상 자격증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사 과정을 들으며

[3] 무한 상상, 100명의 청년 명상지도자를 만드는 방법




"명상의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주위에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쏟는 것이죠. 내 마음은 계속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그냥 허상이죠. 그냥 다 스토리고 픽션일 뿐입니다.(중략)

그런데 이게 저에게 개인으로서도 학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요. 모든 이론이나 스토리 같은 것을 다 옆에 두고 그냥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 유발 하라리, 2016. 4. 28.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강연 중에서

신대승 매거진을 통해 '명상'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모두는 늘 배움의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수많은 진실들에 대해서 '모른다'. 무언가 정답을 찾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늘 유혹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한국에서 대화와 토론은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거나, 한 쪽이 이기면 한 쪽이 지는 문제로 종종 변질되는데, 나는 이 글이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 전 유발 하라리 교수의 강연에 다녀왔다. 2011년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는,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호모 사피엔스를 대체할 새로운 인류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출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명상에 관한 글을 쓰며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가 15년 이상 명상 수련을 해왔다는 사실을 강연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1년에 한두 달씩은 아예 바깥 활동을 끊고 명상에 몰두하며, S. N. 고엔카센터에서 위빠사나 명상을 배웠다는 말을 했다.

나는 세계가 점점 더 명상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생각한다. 허핑턴포스트 페이스북에 올라온 '명상의 효과를 소개하는 동영상'부터 '뉴요커가 매일 운동을 하듯 명상을 한다'는 우먼센스의 글로벌리포트 기사까지, 도처에서 명상에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듣는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성이 중요해지고 또한 발달하는 시대로 가고 있음에 대한 주장과 근거는 유명한 경영사상가인 필립 코틀러나 통합심리학자인 켄 윌버의 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명상은 어떤 이미지와 역할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다시 유발 하라리로 돌아온다. 급변하는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

> "제가 교실에 가서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어서, 그러면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정답'이 뭔가요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항상 정답, 즉 확실성을 요구합니다.
>
> 그런데 우리는 교육자로서 바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교육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개혁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무지함도 받아들이고 정답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편하게 느끼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반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거나 여러 가지 평가제도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한테 무지를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정답 없는 질문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일은 학교나 교실에서 무지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과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에서는 완벽한 스토리를 주려고 하죠. 예를 들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에게 가서 무언가 물어본다면 항상 이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
> 사실 종교에서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문, 과학에서 우리는 무지를 인정하죠. 빅뱅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모릅니다. 의식이 무엇인가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죠."

무지와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명상 수행을 하고 불교정신치료를 가르치고 있는 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 '불교는 관찰의 종교'라는 말이 있었다. 세계적인 명상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책에서도, 과학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저' 관찰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적혀 있음을 본 기억이 난다.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바른 길(八正道) 중 첫 번째인 정견(正見)도 이와 같다. 마음이 지어내는 스토리들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그만큼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나는 학부에서 명상(정확히는 선禪학)을 복수전공으로, 대학원에서는 주전공으로 공부하고 최근에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www.kamto.net)의 명상전문지도사 과정을 듣고 있다. 우리 사회가 명상을 더 필요로 하는 때가 올 것에 대한 일련의 준비다. 불교라는 대지 아래 묻힌 빛나는 금맥과 같은 가르침들을 어떻게 꺼내고 다듬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지가 나에게는 삶의 화두다. 그리고 이 고민 중에 깨달은 하나의 확신은 이 일들을 결코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곳 신대승 네트워크도, 이제 시작하려는 붓다클래스도, 2년 전 모인 절오빠절언니도 그런 모임의 공간이고 관계이며 플랫폼이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 10년 후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1년 후, 3년 후, 한국 불교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일은 어쩌면 가능할 것 같다.

한국 불교의 변화, 그리고 서로의 성장과 실천을 위한 대화가 오가기를 바라며, 나의 첫 번째 편지를 여기 놓아둔다.

- '위빠사나' 소개(호두마을 홈페이지)
  http://www.vmcwv.org/sub2.htm
- 'S. N. 고엔카' 소개(담마코리아 위빠사나 명상센터 홈페이지)
  http://www.kr.dhamma.org/ma/vipassana_goenka.php
- 명상을 추천하는 유발하라리 강연에 대한 자세한 후기와 영상(강민지 블로그)
  http://blog.naver.com/iseefeeldo/220697495848

# 예전보다 이른 무더위가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다

김시열 ▌도서출판'운주사'/'자유문고' 대표, e-매거진 편집위원

예전보다 이른 무더위가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다.

그리고 날씨만큼이나, 아니 날씨보다 더 무거운 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사회 저변에 스멀스멀 흐르는 비관과 절망, 위기의식이 모두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일찍 찾아왔건, 더 무덥고 길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찜통더위를, 여름을 버텨낼 수 있다. 이처럼 끝이 보이는 터널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고난의 여정이지만, 끝을 예측할 수 없는 터널은 공포일 수밖에 없다.

각자도생(各自圖生), 2016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놓인 현실이다. 모든 가치들을 뒤로 밀어내고 오로지 생존만이 최고의 선이 되어버린 각박한 세상이다.

폭력적 현실 앞에 내던져진 개인들은 무력하기만 하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돌려진다. 공부를 못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눈이 높아서, 성실하지 못해서 ……

인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현실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인다. '다른 사람의 사정에 신경쓰지 마라'고, '오로지 너와 너의 가족만을 생각하라'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반칙도 서슴지 마라'고, '이기는 것만이 정의다'고, '눈앞의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라'고 …… 인간을 철저하게 파편화, 고립화, 단순화시키는 마구니의 속삭임이다. 또한 천박한 자본의 전략이기도 하다.

불교의 목적은 일체중생의 이고득락(離苦得樂;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함)에 있다. 나아가 대승불교의 아이콘인 보살은 자타불이(自他不二), 나와 다른 사람을 둘로 보지 않는 마음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생의 아픔에 눈을 감으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중생을 위해 미련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껏 서로 어깨를 빌려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 시작이다.

편집자가 생각하는 신대승불교는 이처럼 소박하다. 말인즉슨 소박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모두가 초발심을 잃지 않고, 서로 좋은 도반이 되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편집자가 신대승-매거진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다.

# 불교 스타트업(불교 기반 창업)의 현재와 미래
## '공익마케팅스쿨 오승훈 대표 인터뷰'

강민지 | 붓다클래스 공동대표, 절오빠절언니 운영진, e-매거진 편집위원

**'불교 기반 창업'이라는 화두(아이디어)를 이 글을 읽는 당신과 한국 불교계에 던집니다.**

인터뷰 삼매에 빠져 있다.

스타트업이라는 말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큰 돈을 벌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는 사업가들, 세계를 움직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도 한때는 스타트업이었다. IT와 IOT(사물인터넷)와 3D프린팅, 게임과 O2O서비스(Online to Offiline),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핀테크(금융기술)와 소셜커머스와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생기고 또 사라진다.

스타트업 시장에서 잠시 눈을 돌려 한국 불교를 바라본다. 현란한 도시에서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다. 나는 불교의 인본주의적 통찰과 방편들이 대중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쓰이기를 바란다. 이 시대에 석가모니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그가 영화 감독이나 게임 개발자가 되어 불교적 콘텐츠를 세상에 전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는 건 어떨까 싶다.

불교 스타트업에 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를 만났다. 그는 마케팅의 공익적 활용을 연구하고 창업가들의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마케팅 전문가이며,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주관하는 (주)마인드디자인을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멘토링했던 멘토이기도 하다.

###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Q. 스타트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터뷰를 시작할지?**

▸신생 기업, 이제 막 생겨난 기업이다. 하지만 기간만으로는 정의하기 어렵다. 기업의 성장단계를 오랜 기간 연구해본 결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가 제일 처음이고 스타트업이다. 그 다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때부터 스타트업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봐도 된다.

**Q. 종종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이 꽤 있는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스타트업이 아닌가?**

경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 신생기업이라고 할 때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고객 기반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이다. 명확한

거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스타트업을 벗어난다. 사업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돈을 내는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고객은 돈을 내는 사람이고,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한 시점부터는 신생기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직 고객을 찾아가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다.

**Q. '불교 스타트업'이라는 검색어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이런 기사가 플래텀(스타트업 전문미디어)에 있다. 최근 창업한 텐시티라는 스타트업인데, 대표가 스스로 불교철학에 관심이 있고 명상을 한다고 말한다. 불교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곳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불교 스타트업 창업자 풀로 눈에 띄는 곳이다. 이런 곳도 넓은 의미에서 불교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 관련기사〉 [Platum] 제니퍼소프트, 와디즈 출신 창업자들이 만든 팀 '텐시티'(2016.6.21)
http://platum.kr/archives/61759

불교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종교로 볼 거냐, 사상이나 철학으로 볼 거냐, 문화로 볼 거냐. 이렇게 3가지다. 종교로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상이나 철학, 문화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상이나 철학보다 문화쪽이 더 기업다운 색이 있을 것 같다.

불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사상이나 철학의 관점과 문화, 문화로 갈수록 더 기업다운 것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사상과 문화를 완벽히 구별할 수는 없다. 커피 원액은 에스프레소, 물을 더 섞으면 아메리카노, 우유를 섞으면 라떼인데, 이게 다 커피다. 사상과 문화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많은가인데, 사상은 생각의 근원이고, 발현된 모습이 문화다. 염주만 놓고 봐도, 스님들이 쓴다면 종교적이고, 염주의 쓰임이나 모양이 변형되면서 염주를 차는 의미가 더 강하면 사상, 느낌이나 색깔이 강해지고 의미가 줄어들면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인드디자인을 겪으며 알게 된 것은 한국 전통문화의 80%가 불교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불교적 의미가 있다. 이런 단어들이 무의식중에 쓰이는 것만 봐도, 불교는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다.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 중에서는 언어가 대표적이고, 언어에는 사상을 담겨 있다.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불교의 업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나로 인해 시작된 많은 것들을 내가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관계가 있을 때, 나의 변화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뿌리 깊은 사상 중 하나다.

**Q. 검색에서 찾은 또다른 기사는 '소울링'이라는 심리상담 서비스이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명권 교수가 이끄는 '마음의 숲'이라는 곳과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심리상담처럼, 불교가 가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본 불교적 창업아이템으로 불교적인 어린이교구를 만드는 '무아', 연꽃 모양 쿠키를 굽는 '오붓', 불교 문구가 적힌 선물용품을 만드는 '착한동자승' 등이 있었다.)

* 관련기사〉 [Platum] "9,600억 스트레스 시장의 1%가 목표", 모바일 심리 상담 서비스 '소울링'
http://platum.kr/archives/55148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이 더 필요해질 거라고 본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생긴다. 과학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규명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떤 존재인가? 과학이 조금씩 질문의 답을 밝혀낼수록 인간은 더 많이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나 사상이 풀 것 같다. 불교는 인간을 탐구하는 사상이고, 나중에는 과학보다 더 과학적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기업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더 나은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삶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리모컨 공장도, 세계적인 명상센터도 기업이다. 출판사도 사상을 상품화하여 책으로 만든다. 이것이 기업이 존재해야할 이유다. 사상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제대로 건드리고 더 낫게 한다면 (불교 스타트업은)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을 것이다.

**Q.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본 기업들 중에 전망이 괜찮겠다 생각했던 곳이 있었나?**

양경수 작가의 팔상성도 같은 작품들을 좋게 보았다. 불교라는 어려운 것을 재치있게 풀어내는 사람도 있어야지 싶다. 다만, 어디까지를 불교로 볼 것인가라는 고민도 든다. 비슷한 예로, 다양한 퓨전 음악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를 국악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다. 법정스님과 법륜스님과 석가모니 붓다의 사상은 각각 다를 것이고, 양경수 작가가 해석한 불교도 또한 다를 것이다. 어디까지 달라질 것인가, 붓다가 말한 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 관련기사〉 [불교신문] 유럽에 나투신 '액션히어로' 부처님, 양경수 작가 네덜란드 초대전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775

**Q. 불교 관련 앱을 만들어서 히트칠 만한 것은 뭔가 없을까?** (가령, 비어 있는 사찰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공간 정보 공유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느 청년불자에게 들었던 적이 있다. 누군가 그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 사찰마다 있기 어려울 거라고 나는 대답했었다)

자기 자신을 셀카방식으로 매일 기록하면 어떨까? 강의를 하면서 사진에 많이 찍히는데, 제가 늘 인상을 쓰고 있더라. 셀카를 찍어도 나는 웃는다고 찍었지만, 인상을 쓰고 있더라. 활짝 웃으니까 그제야 조금 웃는 얼굴이더라. (셀카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 불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한다. 탐구하고 해석하고, 발견해내고 변화시키는 사상인데,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얼굴인 것 같다. 매일 앱으로 셀카를 찍었을 때, 당신의 무엇인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부처님이 얘기해주듯 하면 좋지 않을까.

지난 4월 중국에서는 사람들과 문답을 할 수 있는 로봇 스님이 개발되어, 알파고에 빗댄 알파승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 로봇은 젊은 층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보다 친근하게 전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관련기사〉 [중앙일보] 이 뭣고… 중국에 알파승 등장(2016. 4. 29)

http://news.joins.com/article/19957463

또 다른 사업아이템이 있다. 어느 날 내가 칼을 품고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쪽 분야에서 저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의도였더라도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좋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아이스크림 사진을 저장해두었더니, 사진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

옛 고승들이나 주지스님들이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다면, 그 가르침과 함께 기념품으로 나오면 좋겠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2가지 유훈 중 하나가 흔들림 없는 마음을 지닌 최고의 싸움닭을 뜻하는 목

로봇 스님, 알파승 (이미지 출처: http://www.wenweipo.com)

계(나무로 만든 닭)였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에는 나무로 만든 닭이 있다고 한다. 이런 물건이 그리 흔하지는 않겠지만, 스님들에게도 뭔가 있을 것이다. 불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념품들을

파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다. 정말 하려다가 말았는데, 재밌을 것 같다.

**Q. (어떤 아이템인가에 따라 매우 달라지겠지만) 불교 스타트업들이 눈여겨 보아야할 타깃층은 어떤 이들일까?**

쉬운 시장에 들어갈 거냐, 타깃을 만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을 팔기는 쉬울 수 있다. 반면, 브래들리는 원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였지만, 이 시계를 사고 쓰면서 비시각장애인들이 변화한다. 눈여겨 볼 타깃이라기보다 눈여겨봐야 할 타깃이 있다. 대략적으로 보면 40~60대 불자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불교의 사상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20~40대를 공략해야 할 것이다. 특히 30대가 중요한 타깃일 것 같다.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공략해야할 시장이 있다.

**Q. 현재 마인드디자인이 불교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한다. 본인과 마인드디자인의 인연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2013년, 사단법인 씨즈에서 멘토링 때문에 처음 만났다.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이 고민해주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오랫동안 봐온 마인드디자인의 멤버들과 그중에서도 김민지 대표를 사업가 후배로서 좋아한다. 저랑 사업하는 스타일이 비슷한데, 제가 못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 김민지 대표를 보면서 빙의가 된다. (웃음)

> [참고] 사단법인 씨즈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돕는 비영리단체이고,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인터뷰어는 2014년부터 2년간 씨즈에서 일을 했다.

**Q. 마인드디자인의 성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불교 스타트업의 사업적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인드디자인이 불교 기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불교문화 스타트업이라기보다 전통문화 스타트업이다. 물론 한국 전통문화에서 불교를 뗄 수는 없다. 이런 와중에 어려운 점은, 불교 스타트업이라고 보는 시선이 전통문화를 다루고 싶은 기업 정체성에 방해가 된다. 반대로 불교에서는 불교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통문화로 가냐고 말할 수도 있다. 불교라는 종교에 관심과 호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교문화 기업의 상품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 점이 사업상 어려운 점이다. 20-30대가 이런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이 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불교 스타트업의 장점은 불교의 사상적 배경이 삶에서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출발점에 있다. 불교 스타트업의 역할은 (전부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통역자인 것 같다. 불교의 언어와 대중의 언어가 있고, 같은 것을 다르게 쓴다. 깊고 어려운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흡수할 수 없으니까 대중은 일부만 흡수한다.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대중이 흡수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통역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Q. 지금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획하며 만들고 있는 '붓다클래스'라는 사이트가 있다. 불교와 세상을 잇는 기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청년들이 불교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젊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좋은 스승님들과 청년들을 연결하고 싶다. 이런 서비스는 어떨 것 같은가?**

저라면 붓다가 아니라 붓다의 여러 가르침 중 하나를 클래스명으로 잡을 것 같다. 여러 키워드 중 하나를 고른다면, 탐욕클래스 혹은 무소유클래스. 이게 제가 말한 통역이다.

**Q. 마인드디자인은 사회적기업 창업에서 시작된 곳인데,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지원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둘의 경계가 없어지고 기준이 무너지는 중이다. 사회적기업의 창업은 스타트업에 '사회적'이라는 기준이 첨가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너지면 그냥 스타트업이 된다. 장애인 고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사회문제로 보고, 장애인 100명을 고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대단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은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장애인 100명을 고용했는데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다른 고용주의 인식을 바꾸는 곳이다.

사회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회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근원적인 시스템을 바꾸면 사회문제는 해결된다. 같이 합시다,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다.

장애인 100명을 고용하는 단계에만 머무르면 좋은 기업은 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모두 저의 기준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회적'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회적기업이 별로 없다.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100명이 아니라 50명, 30명도 인정해주자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회적 스타트업과 일반 스타트업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 Q.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은 어떤가?

매우 좋다. 제가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은 창업환경이었으면 삼성이 되었을 것이다. (웃음) 돈도 주고 코칭도 해주는데, 창업의 성공률은 낮고 실패하는 사람은 많다. 실패했을 때 그것을 경험으로 인정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과 사회전반적 인식이 없다. 이게 좀 생겨나야한다.

창업은 창'업'이다. 직장과 직'업'은 각각 명사와 동사다. 의사에게 병원이라는 직장은 명사, 병을 고치는 일은 동사다. 창업은 동사다.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활동하는 것이 창업이다. 반면에 회사는 명사다. 창업이라는 동사에 중점을 둬야하는데, 성공한 기업이라는 명사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성공한 기업이 많아지는 것보다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도전하는 정신이다. 도전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인데, 도전에서 성공만 좋게 보고 나머지 실패의 부분은 잘 보지 않는 것 같다. 이걸로 사업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 Q. 만약 불교계에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생긴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첫째) 실패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붓다의 가르침은 잘못한 사람이 왔을 때 골방에서 조용히 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라고 한다. 이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길을 가다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동생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형이 옆에서 "넘어져도 괜찮아, 한 발 한 발 디뎌."라고 말하더라. 이런 사회적 형이 필요하겠다.

(둘째)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도가 얕은 불교 스타트업이 있다면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통역하기 쉽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기업을 하다 보면 사상적 배경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체계에서 해결해준다면, 기업이 사상적 배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의류디자인 분야를 보면 패턴 디자인이 있다. 이 패턴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데, 불교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패턴 디자인을 많이 제공해주어서, 기업은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쉽게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창업가들에게 '이런 (불교적) 콘텐츠도 있는데 써볼래?'라고 하는 것이다. 다양한 원단을 만들어내면, 의류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옷을 만든다. 디자이너들이 원단을 보지 못하면 아이디어에 제한이 생길 것이다. 다양한 패턴 원단을 만드는 쪽이 지원정책, 옷을 만드는 쪽은 기업가들이 된다.

### Q. 불교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어떤 강점/약점/기회/위협요소(SWOT)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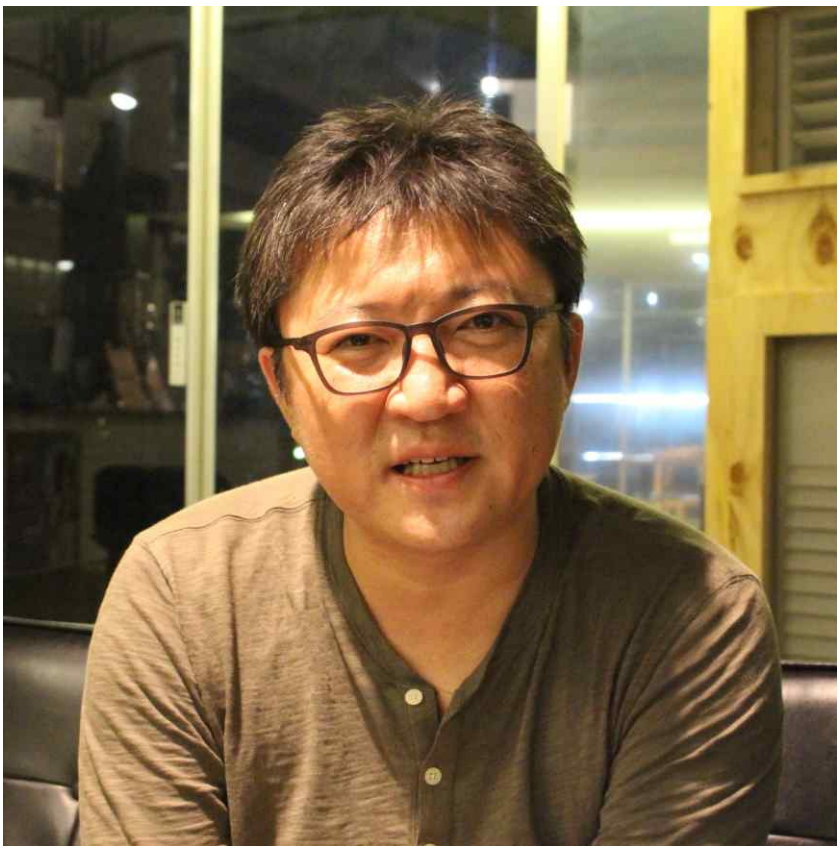
강점은 철학적 배경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점이다. 강점의 종류들 중에 이슈리더십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는 깊은 철학적 배경으로 이슈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약점은 (강점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너무 깊고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화되었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기회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그 연결이 계속 더 강화되면 '진짜 연결'이라는 것을 찾게 될 것 같다. 헬스클럽 같은 곳에 가보면 의외로 날씬한 사람이 더 많다. 날씬한 사람이 날씬함을 지키려고 운동을 더 하는 것이다. 행동적 관점에서 보면 행동변화 후 유지 강화라는 단계가 있다. 사람이 연결되면 연결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길 것이다. 그리고 깊은 욕구는 인터넷으로 해결되

지 않을 것이다. 이때 종교와 같은 철학적 배경이 진짜 연결을 해주지 않을까? 혹은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을 혼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많이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회요소다.

위험요소는 유사 사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사상인지, 그냥 좋은 사상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상이 난립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Q. 불교와 스타트업은 잘 어울릴까?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불교 문화는 매우 잘 어울릴 것이고, 불교 사상이나 철학은 얼핏 잘 안 어울리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다. (앞서 말한) 목계 같은 물건을 파는 쇼핑몰을 불교적 사상과 철학으로 해보고 싶다. 하지만 그 전에 불교를 공부하러 가야하나 싶기도 하다(웃음). 패턴 원단(불교적 창업콘텐츠)이 더 많이 깔려 있다면, 불교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필요한 일(=해야할 일)이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해야 돼요? 총 3명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변기 청소는 누가 할 거냐. 누군가는 결국 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온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하도록 구성된 사회가 좋을 것 같다.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 좋고, 하고 싶은 일인데 필요한 일이면 해도 된다. 필요한 일은 필수 조건이다. 기업들이 해야 할 일(팔정도로 치면, 정명)을 하면 좋겠다. 저는 마케팅이라는 도구가 강력하다고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이 만들어냈다. 비누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클렌징이 생기고, 눈에 바르는 크림과 발에 바르는 크림이 각각 생긴다, 이것들이 정말 다 필요했을까?

반대로, 정말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곳들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스타트업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 불교라는 사상은 정말 필요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소유를 말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수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필요한 것이 남는다. 불교는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한 불교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다. 오승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현재 국내의 분위기는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강남의 구글캠퍼스서울,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 등 대규모로 스타트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독교인 1명이 반드시 창업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을 보았다. 사전 조사를 하면서 동국대학교의 창업지원단이나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같은 곳이 눈에 띄었지만, 불교 스타트업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불교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사업아이템을 찾아본다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사업의 방식으로 불교를 전파하는 일은 통역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업이기에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비누나 스마트폰처럼, 세상을 바꾸는 발명들이 있다. 불교는 이미 2,500년 전, 그 독창적인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발명(혹은 진리의 발견)이다. 붓다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할까? 불교 스타트업 창업에 혹시 관심이 있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다. <끝>

### P.S. 오승훈 대표가 생각하는 공익,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의 공익적 활용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마케팅의 성공은 그 이익이 소수에게 간다.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써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좋겠다. 커피를 마케팅해서 사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다. 한 번 살 것을 두 번 사게 만들고, 다른 커피를 사먹던 사람이 내가 만든 커피를 사먹게 하는 것이다. 동일한 행동 변화의 원리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던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리게 한다면 공익적 마케팅이 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정의하는 나의 기준은 100명보다 101명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그것이 공익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마케팅이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케팅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강민지 편집위원은 '나와 세상이 행복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기를 서원'하며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명상이 우리 사회의 더 많이 필요해지리라 믿고, 미래를 준비하며 '신대승 e-매거진'의 상임편집위원 역과 '절오빠절언니' 운영진 등 청년 불교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의 위기와 종교의 위상

박병기 | 한국교원대 교수, 정의평화불교연대 및 신대승네트워크 공동대표

필자 주: 이 글은 2. 시민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 3. 한국불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가공동체의 역할 등으로 이어지면서 3회 연재로 완성될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시민(市民, citizen)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시민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21세기 초반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민 개념은 주로 서구적인 배경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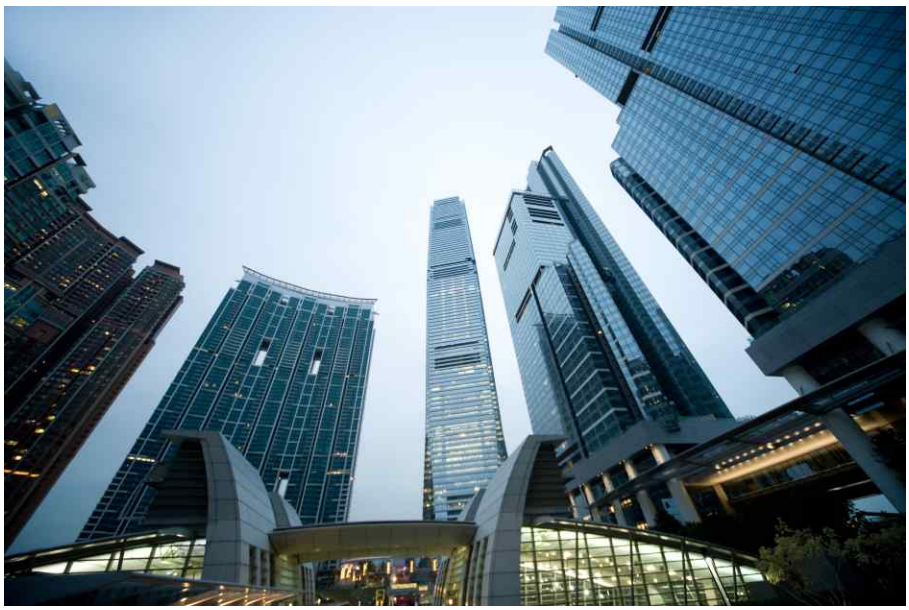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의 도시공동체인 폴리스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에서 출발해서,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며 중세 교회공동체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부르주아로서의 시민에서 일정한 완성을 이룬 서구적 시민 개념을 광복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 시민은 그런 수입 개념으로서의 역사와 함께 19세기 동학혁명과 20세기 초반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20세기 중반 이후의 4.19학생운동과 광주민주화 항쟁,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주체적인 수용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정착한 것이기도 하다.

그 시민이 주인공인 시민사회는 특히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도덕하고 폭압적인 정권과의 대립각을 통해 저항적 성격의 것으로 자리 잡았다. 그 시민사회는 민주화 투쟁을 거쳐 등장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정권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일부로 포함되는 전환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민사회는 저항성을 중심에 두고 비판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삼는 운동 중심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시민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시민 없는 시민사회, 대안 없이 비판만 일삼는 시민단체 등등의 표현이 그러한 위기를 상징하는 것들이고,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징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민주화 투쟁이라는 운동을 중심에 두고 사회 곳곳에 질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의(不義)와 맞서온 저항적 시민사회가 이제 그 시대적 유효성을 상실한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에 시민성으로 상징되는 건강한 정치경제적 도덕성이 전반적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징후와의 깊은 연관성 때문일까?



## 21세기 초반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에 관한 분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 사회현상에 주목하면서 그 현상의 배후에 숨어있는 위기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위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구성원인 우리 자신의 삶을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시민사회의 위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20세기 이후 사회과학의 흐름을 주도해온 두 이론적 배경, 즉 사회구조에 주목하는 마르크스주의와 개인의 심리에 주목하는 프로이드주의라는 두 시각 모두를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체계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니클라스 루만 같은 관점도 포괄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회현상에 주목해보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들만 열거해 본다면, 급속히 확산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로 인한 인간관계 양상의 변화, 1인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문화의 급속한 변화, '헬조선(hell朝鮮)'으로 상징되는 불평등 구조의 정착과 그로 인한 절망의 일상화,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하는 힘의 대결 양상 속에서 심화되는 불안과 그에 대한 불감증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더 이상 '풍요 속 빈곤'이나 '군중 속 고독' 같은 엷은 사회학적 개념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중층적 복합성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현상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징후들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면의 성찰을 통해 분석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성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 어려움을 직시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친근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시민사회에 관한 분석은 그 구성원인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내면적 성찰과 함께 쏟아지고 있는 관련 자료들의 유기적 활용이 더해져야만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자칫 허망한 통계적 진리에 휘둘리거나 각 개인의 편견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에 유념하면서 우리 시민사회를 분석해본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위기 징후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징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위기 분석 또한 일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민사회의 위기는 먼저 급속한 개인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개인화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 독일 사회철학자 울리히 벡이 정착시킨 개념이지만, 현재는 주로 각 개인의 소비성향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기성과 탈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즉 인간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자라는 인간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개인화가 특히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정정착하게 되는 계기는 20세기 후반 구제금융사태이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어 버렸다. 이기성과 고립성을 배경으로 삼는 개인화는 자연스럽게 그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대상인 물질, 즉 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도덕적으로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물신주의(物神主義)의 정착과 정신적인 영역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대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시민사회는 껍데기만 남긴 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구사회나 일본과 중국 같은 인근 국가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그 속도성으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 가지 더해져야 하는 우리 시민사회 위기의 원인은 분단구조와 그로 인한 합리성의 위기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분단구조를 정권 획득과 유지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결과 분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불만과 위기를 흡수해버리는 블랙홀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반도 분단구조는 객관적인 직시를 전제로 하는 극복의 대상이지만, 현재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기반인 합리성에 근거한 토론과 소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시민사회 자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단구조는 개인화와 부적절하게 연결되면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감, 미국에 대한 문화식민지적 의존의 심화를 불러오는 원천이 되고 있기도 하다.

## 시민사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 종교의 위상

시민사회와 종교의 관계는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근대 시민사회의 출범과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상징되는 종교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했던 그의 시각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해 유교문화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큰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처한 위기의 분석과 대안 모색의 과정에서 종교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 위기 징후의 핵심이 정신성과 관계성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주로 구체적인 제도로서의 그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로 대표되는 제도권 종교가 전체 국민의 반 정도를 신도로 흡수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종교는 이 둘 중 하나이거나 무속신앙 같은, 이른바 '하등 종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이 종교가 시민사회의 위기를 상징하는 정신성과 관계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는가?

불행히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정신성 영역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타락시키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고, 관계성 영역 또한 부적절한 연고주의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특히 불교가 그런 혐의가 강하고, 후자의 경우 개신교가 그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톨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역시 낙관적이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종교는 시민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이거나 최소한 공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도 종교에 속해있는 시민의 도덕성과 정치성이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해 하등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선거철이 되면 자신들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패거리를 짓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종교라면 당연히 그 존재의의를 의심받을 만하다.

"우리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 라는 근본적 물음을 다시 던지면서 제도 종교를 포함한 종교가 21세기 초반 한국의 시민사회 속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지닐 수 있고 또 지녀야만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시기를 우리는 건너고 있는 중이다.

# 한국시민사회에서의 불교의 위상과 역할

박병기 | 한국교원대 교수, 정의평화불교연대 및 신대승네트워크 공동대표

시민사회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이루는 사회이다.

이 시민은 일차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적인 삶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정치경제적인 의미가 중심이 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시민사회는 4·19와 5·18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실천적 노력과 계기를 통해 정착했고, 그 결과 저항적 성격을 지니는 시민사회로서의 특성을 주로 지니게 되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민란과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상징되는 백성 또는 민중들의 자의식 확장과 그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현대 한국의 시민사회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광복 이후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입된 서구 시민사회론이 그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동안 현실 속에 시민사회가 뿌리내리는 과정은 독재와의 치열한 투쟁 과정으로 이어져야만 했다.

21세기 초반 한국사회는 이제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시민사회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민주적인 절차의 확립, 평등의식의 정착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런 변화는 산업화의 일정한 성공으로 인한 경제력 규모 확보 등과 연결되면서 20세기 세계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이러한 성과는 주로 외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온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을 향한 기대와 열망이 갈수록 커져가는 21세기 초반을 우리는 함께 건너고 있는 중이다.

## 한국 시민사회와 불교의 만남

### “전두환정권과 유착한 서의현, 한국불교 정체성 뿌리째 흔들어”

개화기 이후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사회변혁을 이끈 것은 주로 동학에 뿌리를 둔 천도교와 개신교 중심의 그리스도교였다.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비폭력 저항을 이끈 주체들이 바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불교의 경우는 용성과 만해 이외의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의 척불정책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한국불교에 일제의 지배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대처승단을 중심으로 재편된 왜색불교는 비구승들을 소수로 내몰면서 깊은 뿌리를 내렸고, 광복 이후 길고 처절한 ‘정화’의 과정을 감내하는 것으로 그 대가의 최소한을 치러야만 했다. 만해와 용성, 만공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선학원’의 청정 수행정신을 바탕으로 대처승단에 빼앗긴 절집 뺏어오기로 진행된 정화 과정은 그러나 철저한 개신교도였던 이승만의 유시가 주된 힘으로 작동함으로써, 이후 불교계는 특정 정권과의 유착과 그로 인한 비판정신의 실종이라는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현대사의 가장 폭압적인 정권이었던 전두환정권과의 유착과 그것을 이끈 서의현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의 경우라고 해서 특별히 나을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산업화 과정의 민주화 투쟁을 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진보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정의구현사제단이 중심이 되어 성취한 군사정권의 퇴진이라는 성과와 비교해볼 때 불교의 경우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민중불교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사람들의 저항과 그에 동참했던 일부 스님들의 실천이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 되는 정도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처럼 수입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자리를 잡았으면서도 그 이념이 현실화되는 지난한 저항과 투쟁을 동반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다.

21세기 초반 한국사회는 이제 최소한 외형적으로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 같은 내면적 가치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성취를 거두면서 우리 삶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부각된 한국 시민사회의 질적 전환 과제를 제대로 달성해내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독재적 경제개발을 여전히 미래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물론 지난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국회를 출범시킨 시민적 역량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일 또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기도 하다. 특히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우리 시민사회의 정신적 건강성 문제이다.

사회를 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계로 보고자 하는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민사회는 소통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대한 괴물 크기의 그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데 바쁘고, 그 이익 확보라는 기능 말고는 다른 기능을 제대로 설정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종교는 부정적인 의미의 적극적 기여를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신교의 영적 전쟁 프레임을 근간으로 삼는 성장지상주의와 불교의 어설픈 모방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영적 전쟁 프레임을 모든 다른 종교와 비종교인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개신교는 이미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불교 또한 온갖 추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정권과의 지속적인 유착과 비판정신의 실종이고, 끝없는 대형 불사(佛事)를 통한 외형적인 성장의 추구이다.

##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역할과 과제

### "종교로서의 불교가 한국 시민사회를 위해 할 역할은 시민들 사이의 연기성 회복"

한국 시민사회와 한국 불교는 서로 얽혀있는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거꾸로 서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대안도 찾아낼 수 있다는 불교철학의 핵심 테제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를 지금 이 순간의 찰나의 미학에 주목하며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차원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의(正義) 같은 가치들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니클라스 루만이 주목한 기능으로서의 소통의 위기이다. 물론 이 두 위기는 같은 문제의 다른 모습과도 같은 긴밀한 연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시민적 가치들의 위기가 시민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외형적 성장과 기능 분화라는 측면에서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한국 시민사회는 그 각각의 하위 조직들이 본래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비대해지기만 하는 거대한 교회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맹목적 성장지상주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자신의 내집단 속으로 숨어들면서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본래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들을 추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끔 그 기능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조직이 보이는 경우에도, 대체로 무조건적 성장을 통한 외형의 확대라는 목표 말고는 다른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는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공격적인 선교나 치명적인 원자핵발전소 수출 같은 행태로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어디선가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미세먼지와 핵발전소 파괴, 핵전쟁 같은 인류 종말의 시간을 향해 속도를 높이는 일 말고 우리에게 남은 미래란 없음이 확실한 데도,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무감각과 의도적인 회피만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남아 있는 것일까?

다행히도 우리 논의의 맥락에 근거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비교적 분명한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정신적 가치들의 회복과 그것에 근거한 소통 기능의 확보이다. 시민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가치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정의와 연대(連帶)라는 가치를 회복할 필요성과 마주하고 있고, 이 두 가치의 회복 과정 자체가 소통 기능의 확보라는 다른 목표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풍부하게 열려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민주(民主)를 주로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해내면서 현실 속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다. 우리에게 민주화는 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했고, 우리는 이 과제를 수많은 희생과 참여를 통해 달성해 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동시에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로의 급속한 편입과정으로 연결되면서 국민소득증가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의도치 않게 각 시민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상실되거나 훼손되는 결과와 직면해야만 했다. 그것은 곧 공화(共和)의 상실임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연기성(緣起性) 또는 관계성의 훼손이기도 하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한국 시민사회를 위해 할 수 있고 또 해주어야만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 사이의 연기성 또는 관계성 회복이다. 헌법적 가치 중에서 공화정신(共和精神)의 회복임과 동시에 각 시민들의 삶의 의미 물음에 관한 근원적인 답변 제시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승가(僧伽)를 중심으로 제도종교의 개인화 현상 속으로 흡수되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고, 개신교의 경우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안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시민사회 자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망 훼손은 곧바로 다른 시민들, 특히 현대 윤리학자 존 롤즈의 개념인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를 낳음으로써 사회정의라는 가치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대물림으로 '흙수저론'과 '헬조선(hell朝鮮)'이라는 상징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한국불교가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지점에 자리한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는 자비의 눈길과 손길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실천적 통로라는 역할 회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불교가 불교답게 서야 하고, 그 출발점은 사부대중공동체의 온전한 성립과 작동이다.

박병기 교수는 '내부로는 사부대중공동체가 살아나는 불교를, 외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위기와 절망에 희망을 주는 불교와 사회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신대승네트워크 운동을 위하여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양윤리교육학회 회장, 불교평론 편집위원 등 불교계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 길을 걷다
## 1.한반도 열두 우두머리 산, 삼각산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서울학교 • 고을학교 교장

동양에서는 세상 만물을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때 맞춰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고(天時), 땅은 하늘이 내려준 기운(氣運)으로 자양분(滋養分)을 만들어 인간을 비롯한 땅에 기대어 사는 '뭇 생명'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地利), 사람은 하늘과 땅이 베푼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더불어 일하고, 나누고, 즐기며 화목하게(人和)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에서 "대저 살 터를 잡는 데에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우리 선조들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합당한 이치(理致)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풍요로운 수확(收穫)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들의 정겨움과, 보아서 좋고 노닐어서 더욱 좋은 수려한 산천경계가 함께 갖추어진 곳을 이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크게 보아 산(山)과 강(江)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산줄기 사이로 물길 하나 있고, 두 물길 사이로 산줄기 하나 있듯이, 산과 강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맞물린 역상(逆像)관계이며 또한 상생(相生)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산과 강을 합쳐 강산(江山), 산천(山川) 또는 산하(山河)라고 부릅니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山自分水嶺)"라는 <산경표(山經表)>의 명제에 따르면 산줄기는 물길의 울타리며 물길은 두 산줄기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산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발원한 물길은 그 두 산줄기가 에워싼 곳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같은 곳에서 시작된 함께 흐르는 물줄기(水 同)'라는 뜻으로 동(洞)자를 사용하여 동천(洞天)이라 하며 달리 동천(洞川), 동문(洞門)으로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동천 주변에서 산줄기에 기대고 물길에 안기어(背山臨水) 삶의 터전인 '마을(村)'을 이루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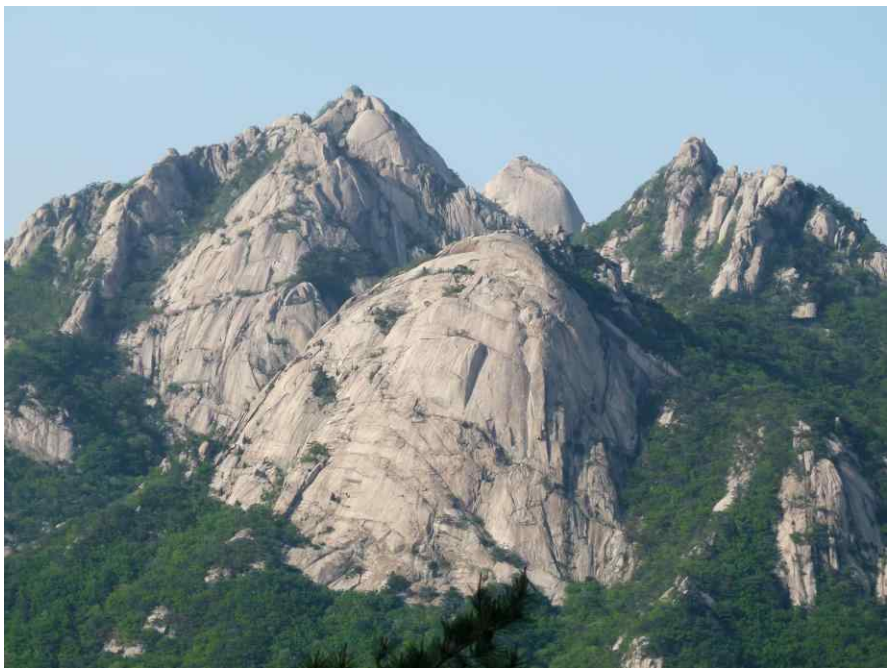
'마을'에서 볼 때 산줄기는 울타리며 경계인데 물길은 마당이며 중심입니다. 산줄기는 마을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데 물길은 마을 안의 이쪽저쪽을 나눕니다. 마을사람들은 산이 건너지 못하는 물길의 이쪽저쪽을 나루(津)로 건너고, 물이 넘지 못하는 산줄기의 안쪽과 바깥쪽은 고개(嶺)로 넘습니다. 그래서 나루와 고개는 마을사람들의 '소통(疏通)의 장(場)'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희망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마을'은 예로부터 '말'이라고 줄여서 친근하게 '양지말' '안말' '샛터말' '동녘말'로 불려오다가 이제는 모두 한자말로 바뀌어 '양촌(陽村)' '내촌(內村)' '신촌(新村)' '동촌(東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물줄기(洞天)에 기댄 자연부락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마을'이라 하고 여러 마을들을 합쳐서 보다 넓은 삶의 터전을 이룬 것을 '고을'이라 하며 고을은 마을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는 큰 물줄기(流域)에 기대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首都)가 된 것은 조선의 도읍(都邑) 한양(漢陽)이었기에 그러하였고 한양이 조선의 도읍으로 선택된 것은 삼각산(三角山)이 부려놓은 터전이 풍수 지리적으로 예사롭지 않았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 중에 최고의 격(格)을 나타내는 12종산(宗山)에 삼각산도 포함됩니다. 백두산, 원산, 두류산, 낭림산, 분수치, 태백산, 속리산, 장안산, 지리산은 모두 백두대간 상의 분기점이라는 조종(祖宗)적 위치인데 비해 삼각산은 금강산, 오대산과 더불어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산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천하명산 금강산(金剛山)이야 중원(中原)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고 오대산(五臺山)은 불법(佛法)의 보고이니 종산이 되고도 남을 것이나 삼각산은 이도 저도 아니면서 종산이 된 이유는 그 부려놓은 터가 도읍지로서 충분할 정도의 명산이었기에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백두대간(白頭大幹) 상의 분수치에서 갈려 나온 한북정맥(漢北正脈)이 적근산, 대성산, 광덕산, 지나 광덕고개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솟구쳐 백운산, 국망봉, 청계산, 운악산을 지나며 높낮이를 이어 오다가 포천과 의정부를 넘나드는 축석고개에서 그 높이를 현저히 낮추고 불곡산, 도봉산을 지나 영봉(靈峰)에 이르러 정맥의 본줄기는 서향하여 노고산 지나 장명산에서 서해로 숨어들고 다른 한줄기는 남쪽으로 그 방향을 돌려 삼각산(三角山), 즉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을 일구고 보현봉(普賢峰)에 이르러 동남향하면서 형제봉(兄弟峰), 보토현(補土峴), 구준봉(狗蹲峰)을 지나 마침내 한양(漢陽)의 주산(主山)인 백악(白岳)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산줄기의 흐름을 풍수 지리적으로는 내룡(來龍)이라고 하는데 산의 기운(氣運)이 산줄기(龍)의 뻗침과 함께 전해져 온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헌걸찬 정기(精氣)가 산줄기의 뻗음을 타고 한양의 주산인 백악으로 이어져 그 기운을 한양 도읍에 불어 넣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 서울은 무척 넓고 깊습니다.

서울이 역사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강유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였을 때로 한반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은 꼭 차지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서울은 고려시대에는 남쪽의 수도라는 뜻의 남경(南京)이었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개성에서 천도, 새로운 수도 한양(漢陽)이 세워졌던 곳이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망국(亡國)의 한을 고스란히 감당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일본에 합병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곳도 서울입니다.

이렇듯 서울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각 시대의 문화유적의 보고(寶庫)이며 개항 이후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펼쳐 놓은 근대문화유산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어 서울이 이룩해 놓은 역사 문화유산은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만큼 온전하게 제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곳도 서울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의도적으로 우리 문화를 파괴, 왜곡시켰으며 한국전쟁으로 또 다시 초토화 되었는데 그나마 남아 있던 문화유산은 개발독재세력의 산업화와 개발의 논리에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 접하고 있는 서울의 문화유산은 점(點)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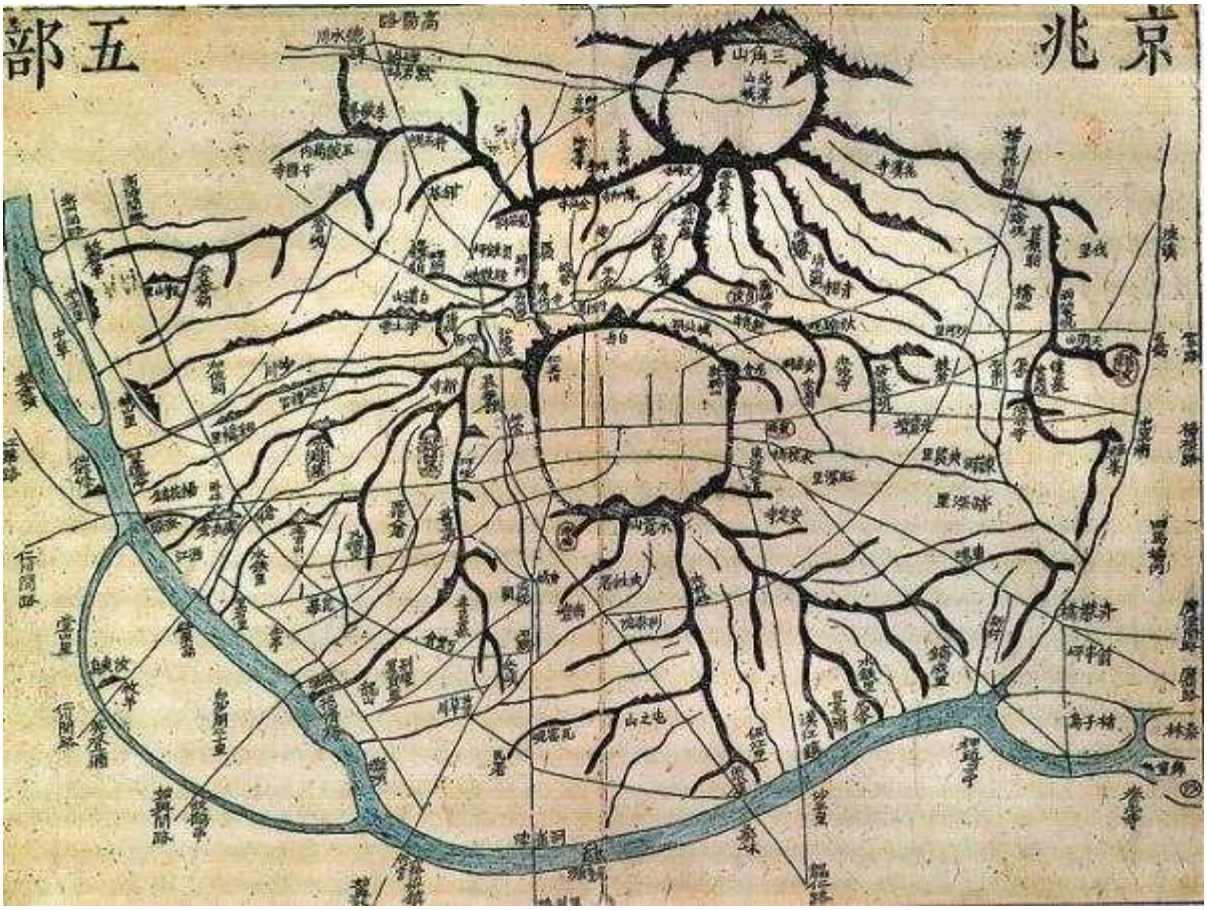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모아 선(線)으로 연결하고, 그 선들을 쌓아서 면(面)을 만들고, 그 면들을 세워 입체의 온전한 서울 문화유산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비록 역사유물은 전해지지 않더라도 신화, 전설, 역사서, 지리지, 세시풍속기, 풍수지리지 등 많은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 기록들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역사적 상상력'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화유산의 보고인 서울, 그 길을 함께 나서는 길동무(道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입체적인 '서울이야기'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 서울, 길을 걷다
## 2.한양 도읍의 건설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신대승네크워크 한국불교아젠다위원장




고려 말 천도예정지(遷都豫定地)는 계룡산(鷄龍山), 한양(漢陽), 그리고 안산(鞍山)의 세 곳이었습니다.

계룡산은 정감록(鄭鑑錄)에도 나와 있는 길지(吉地)로서 제일 먼저 천도 후보지에 올라 도성 축성을 일정부분 진행하였습니다만 그 위치가 나라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남서쪽에 치우쳐 있고 도참사상(圖讖思想)에 의하면 계룡산 일대는 정씨(鄭氏)가 도읍을 세우는 곳이라는 주장 때문에 10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되어 기단 일부의 석축물만 남아 전해지고 있으며 이곳의 지명이 '새로운 도읍지'라는 뜻으로 신도안(新都案)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지금은 이름을 계룡대라 고쳐 부르며 육, 해, 공군의 참모부가 들어섰습니다.

다음으로 하륜(河崙)이 주장한 안산 주산론(主山論)은 이곳의 지형이 앞이 확 터여 한강(漢江)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한강은 바로 서해(西海)와 맞닿아 있어 해양진출이 용이함으로 도성으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풍수 지리적으로는 주산(主山) 앞에 안산(案山)이 있어 내룡(來龍)한 기운이 어느 정도 맺혀야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 지형이 막힘이 없기에 맺힘도 없어 풍수 지리적으로는 길지(吉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성리학(性理學)에 기초하여 나라를 세운 조선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을 분명히 나누었는데 해상무역(海上貿易)은 바로 가장 낮은 층인 상(商)에

해당함으로 그 직업을 천하게 여겼던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역사적으로 백제, 신라, 고려는 동아시아의 해상왕국으로서 백제는 중국의 동쪽 바닷가 도시에 백제원(百濟院)을 개척하였고 신라도 그 전통을 이어 신라방(新羅房)을 두었고 고려의 도읍 개성에서는 복식부기(複式簿記)를 사용할 정도로 무역의 거래가 활발하였으나 조선에 이르러 성리학을 치국이념(治國理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안산을 주산으로 삼으면 궁궐터는 연희동 입체교차로 어름일 것이고 좌청룡(左靑龍)은 서강대 뒷산인 노고산(老姑山), 우백호(右白虎)는 서대문 구청 건너편 백련산(白蓮山)이 됩니다. 그러나 풍수 지리적으로 터가 옹색하고 한강까지 훤히 터여 있어 산의 정기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하여 아쉽게도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 마침내 한양이 천도지로 결정되다.

'산남수북왈양(山南水北曰陽), 일지소조왈양(日之所照曰陽)'은 중국식 지명을 정하는 원칙 중의 하나로서 산의 남쪽, 물의 북쪽이면서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양(陽)이라고 한다고 하니 한양(漢陽)이란 '북 한산 마을'의 양지 바른 곳으로 한강의 북쪽, 북한산의 남쪽을 지칭하므로 한양은 북한산에 기대고 한강을 품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典型)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읍의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제일 먼저 도읍의 울타리를 둘러쳐야 했을 것입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북으로 북한산(北漢山)이 남으로는 관악산(冠岳山)이 동쪽 끝머리에는 워커힐 호텔이 기대고 있는 아차산(峨嵯山)이 서쪽 끝머리에는 행주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덕양산(德陽山)이 큰 울타리를 쳐주고 있으니 이를 일러 외사산(外四山) 즉 한양의 바깥 경계라고 합니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봉우리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보현봉에서 솟구쳐 형제봉을 지나 보토현(補土峴)에서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아오른 곳이 백악(白岳)으로 한양의 주산(主山)으로 조선의 법궁(法宮)으로 그 권의와 위용을 떨쳤던 경복궁(景福宮)이 기대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백악에서 동쪽으로는 낮은 산줄기가 이어지다가 조그만 봉우리가 아주 낮게 봉긋 솟았으니 이름 하여 '매봉우리'인 응봉(鷹峰)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 성균관(成均館) 그리고 종묘를 품고 있는 봉우리입니다.

응봉을 지나 동쪽 끝머리에 타락산(駝駱山)이 있으니 지금의 낙산(駱山)을 이름이요, 백악에서 서쪽으로는 불끈 솟아올라 인왕산(仁王山)을 일구었고 무악재(毋岳)에서 내려앉았다가 안산(鞍山)으로 다시 솟구쳐 서쪽 끝머리를 장식하고 있고 남으로는 남산(南山)이라 불리는 목멱산(木覓山)이 부드럽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듯 주산인 백악, 좌청룡 낙산, 우백호 인왕산, 안산(案山)인 남쪽의 목멱산이 한양의 좁은 울타리로서 내사산(內四山)이라 하는데 이 네 봉우리를 둘러친 울타리가 한양도성입니다. 울타리를 둘러쳤으니 다음으로 사람들의 왕래를 위해 문을 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대문(大門)을 내고 그 사이사이에 소문(小門)을 내 모두 여덟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사대문은 그냥 멋없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인 오상(五常),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가운데 인의예지 한 글자씩을 붙여서 명명하였으니 동대문은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 그렇다면 북대문은 지(智) 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숙정문(肅靖門)이라 하였습니다.

## 숙정문의 기구한 운명

태종 때 풍수학생 최양선이 창의문(彰義門)과 숙청문은 지리학상 경복궁의 양팔과 같으니 길을 내어 지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며 상소를 올려 문을 막고 통행을 금지할 것을 청하므로 마침내 창의문과 숙청문을 폐쇄하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후로 숙정문은 계속 닫혀 있었으며 다만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시기에만 문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 따르면 북쪽은 음(陰)과 수(水)에 해당하며 남쪽은 양(陽)과 화(火)에 해당되기에 가뭄으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는 북문인 숙정문은 열고 남문인 숭례문은 닫고 장마가 져서 기청제(祈晴祭)를 지낼 때는 남문인 숭례문을

열고 북문인 숙정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백악 일대를 전면 개방하며 비로소 숙정문이 열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창의문은 인조 때부터 문이 열렸는데 광해군을 몰아내려는 반정 군인들이 창의문을 부수고 들어와 반정을 성공시키고 인조를 등극시켰으므로 창의문은 그들의 개선문(凱旋門)이기에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숙정문은 최양선의 상소가 없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도성의 북문으로서 성 밖을 나서면 그 길이 한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경원가로(京元街路)로 이어져야 하는데 삼각산과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사람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숙정문 보다 훨씬 동쪽에는 거의 평지와 다름없는 곳에 혜화문(惠化門)이 있어 이문을 이용하면 쉽게 경원가로를 오갈 수 있기에 숙정문은 만들 당시부터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문인 것입니다.

사소문(四小門)의 이름은 동소문이 혜화문(惠化門)으로 지금의 혜화동에 복원이 되어 있는데 동소문의 처음 이름은 홍화문(弘化門)이었으나 성종24년(1493년) 창경궁(昌慶宮)을 조성하면서 그 정문이 홍화문이라고 하여 혼동을 피하려고 혜화문으로 개명하였고 서소문이 소의문(昭義門)으로 덕수궁 앞 서소문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서소문도 처음에는 소덕문(昭德門)이라 했는데 성종3년(1472)에 예종의 비(妃)를 장순왕후(章順王后)로 추존할 때 시호에 '소덕(昭德)'이 들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개명하였고 남소문은 광희문(光熙門)으로 지금도 동대문과 장충동사이에 우뚝 서 있고 북소문은 창의문(彰義門) 또는 자하문(紫霞門)으로 불리며 세검정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인의예지신 중에 신(信)이 빠졌는데 신은 어디에 이름 붙였을까요? 그것은 도성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종루에 명명되어 있는데 이름 하여 보신각(普信閣).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신각은 태종 때 이층으로 지어진 누각(樓閣)으로 최초의 이름은 그냥 종루(鍾樓)라고 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복원하면서 단층으로 지어져 종각(鍾閣)으로 불렸는데 다시 70년대 지하철 공사로 증축하며 이층 누각으로 지었으니 종루(鍾樓)가 맞는 명칭일 것입니다.

**누(樓)란 지면에서 한길 정도 떨어진 마루집이거나 이층집의 이층을, 이에 비해 각(閣)은 단층의 단출한 집**

누(樓)란 지면에서 한길 정도 떨어진 마루집이거나 이층집의 이층을, 이에 비해 각(閣)은 단층의 단출한 집을 가리키므로 지금의 종각은 잘못 쓴 것이고 종루로 바꿔 불러야 합니다.

종루에서는 하루에 두 번 종을 쳤는데 "밤이 되었으니 하루를 마감하라. 그리고 성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동양에서 이해하는 하늘의 기본 별자리 수를 따라 스물여덟 번을 치는 인정(人定)과 "새벽이 밝으니 하루 생활을 시작하라. 성문을 연다." 는 뜻으로 불교의 33천(天)에서 따와 서른세 번을 치는 파루(罷漏)가 그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궁궐(宮闕)과 종묘(宗廟)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을 건설해야 합니다.

임금의 자리가 세습되는 고대사회는 임금을 낳게 한 조상들을 기리는 사당(祠堂)인 종묘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함으로 튼실한 씨앗과 비옥한 농토를 바라며 토지의 신(社)과 곡식의 신(稷)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직단(社稷壇) 그리고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을 우선적으로 지었습니다.

중국의 관습에 따라 임금은 등을 북쪽으로, 얼굴은 남쪽을 향하여(背北南面) 통치행위를 하므로 임금이 사는 궁궐은 남향으로 좌향(坐向)을 잡았고 궁궐을 중심으로 종묘는 왼쪽 사직단은 오른쪽인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을 따라, 왼쪽인 동쪽에 종묘(宗廟)를 오른쪽인 서쪽에 사직단(社稷壇)을 건설하였습니다.

# “어린이 불서 제작을 위한 출판계의 고군분투”

편집위원회

독서는 창의성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길러주며, 사고의 폭을 넓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배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어 줘야 좋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 많은 불자들은 공부를 한다. 하지만 정작 자녀교육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효과적이지 못한 모양이다.

어린이 책은 대부분이 부모님 등 어른들이 구매한다. 교보문고가 200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0년간 자사 유아·어린이 분야 도서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버나뎃 로제티 슈스탁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로 나타났다. 2위는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 3위는 다다 히로시의 ‘사과가 쿵’이 차지했다. 국내 책으로 권정생의 ‘강아지똥’이 4위에, 백희나의 ‘구름빵’과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각각 5위, 8위로 뒤를 이었다. 20위 순위 안에서 국내 작가는 5명이다. 이런 상황에 어린이 불서를 찾아보기는 더 힘들다.

불서총판 운주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5종의 신간 불교서적이 출간됐다. 그 중 어린이 불서는 16종,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다. 일반출판시장과 비교한다면 그 수치는 더 미미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작년 한 해 출협을 통해 납본된 도서를 중심으로 집계한 결과 신간 종수는 모두 45,213종, 그 중 아동문학은 모두 5,572종이다. 이렇게 쏟아지는 책 속에서 열 몇 권의 불서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찰에서 등록한 1인 출판사들을 제외한 상업적 불교 출판사는 대략 30여 군데. 일반 출판시장과 달리 불교시장은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어린이 불서를 1년에 1,2권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손에 꼽는다. 이런 와중에 불교시대사의 어린이 책 브랜드 ‘참글어린이’가 어린이 불서 7권을 동시에 출간해 눈길을 끌었다. 작년 한해 출간된 어린이 불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동종업계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린이 불서 출간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이다.

도서출판 참글어린이 이규만 대표는 “타종교에서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많은 어린이 도서를 출간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힘든 상황”이라며 “번역서는 간혹 나오지만 창작 동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출간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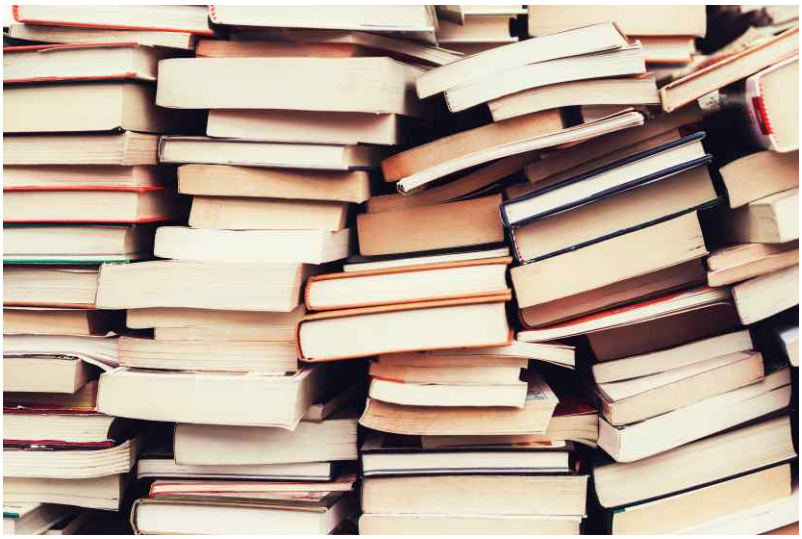
어린이 불서 출간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계 출판사 관계자들은 ‘수익성’이 없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어린이 불서의 대부분은 그림이 차지하는데 이 그림 비용이 어린이 불서의 가격을 좌우한다.

운주사 김시열 대표는 “어린이 불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며 “출간을 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출간 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 시장의 원리이다. 그 누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는가.

“출간을 해도 판매가 되지 않으니 어린이 불서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투자 금액이 낮아지면 책의 질이 낮아지고 사람들은 책을 사지 않고, 그 결과 출간되는 종의 수가 줄어들고…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김 대표는 어린이 불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법회에서 불서 읽기를 장려하고, 종립학교에 책을 보급하는 등 종단에서 구조적·제도적으로 어린이 불서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출판사의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 포교의 일부로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이규만 대표도 포교의 한 방법으로써 어린이 불서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광미디어 류지호 대표는 불자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어린이 책은 대부분 어른들이 구입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불서에 불자들은 관심이 없죠. 아이들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어린이 불서가 불교계 내에서 조차 외면 받는 상황이다.



출판계의 신심과 원력만으로 어린이 불서를 제작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교계 내에서도 수요가 없는 책을 일반 대중들이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어린이 포교의 일환으로 어린이 불서가 수면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불교 출판계 관계자들은 "어린이 불서에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하면 출판계의 선의의 경쟁으로 다양한 어린이 불서가 출간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책의 질이 높아지고 이것은 어린이 불서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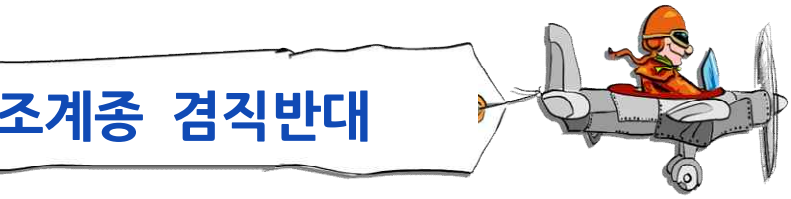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글어린이 이규만 대표는 신심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직접 발로 뛰며 동화 작가를 섭외하고 어린이 불서를 제작한다. "불서라고 해서 불상이나 스님이 꼭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불교적 색깔을 빼려고 노력해요." 불교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참신한 작가를 직접 찾아다닌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작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 대표는 불교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 정작 콘텐츠로 제작된 것은 그 수가 미미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백유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백유경'에서만 98권의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경전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만들어진 콘텐츠는 너무 적어서 아쉬워요."

외면 받는 상황에서도 불교 출판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어린이 불서를 읽고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런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도서출판 참글세상 이규만 대표는 연간 10권, 총 108권의 어린이 불서 출간 원을 세웠다. 일반 불교서적으로 낸 수익을 어린이 불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두 권의 어린이 불서는 제작해야죠. 읽을 책이 없다는 것에 책임져야 하니까요" 불광미디어 류지호 대표는 불교의 미래에 대한 업계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이 불교계 신진 작가 양성을 위해 '법계문학상'을 제정했다. 시상부문은 장편 동화와 장편 소설로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신인 및 등단 5년 미만인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법계문학상이 참신한 동화작가를 발굴하는 시발점으로 어린이 출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 조계종 겸직반대



승가그림판
박 재 동
총무원장께서 본사주지를 임명하고
종회의원이 총무원장의 운행을 관여
본사주지가 말사주지를 임명하고
말사주지가 종회의원을 낸다.
나무상주종헌종법
나무상주총무원장

1994개혁의 핵심중 하나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개혁종헌 제35조①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부·실·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

이유는?
1인에 의한 종권의 집중으로 인하여 종단 분규 등이 발생하는 등 종단 안팎으로 폐해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후...20여년이 지난 지금,
'총무원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모든 부실국장을 중앙종회의원이 겸직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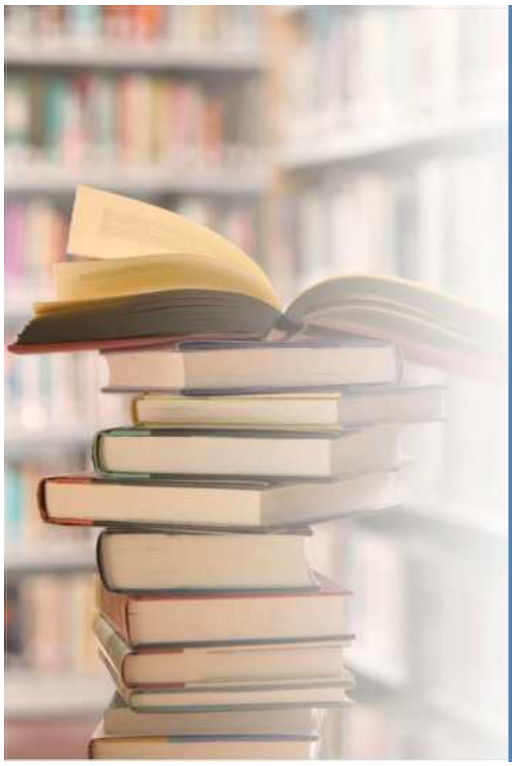
이유는?
인사난의 해소…

예상되는 결과는?

견제와 균형의 파괴
소수 회전문인사
본사주지 겸직금지도 해제하자고….

94년 이전은…종단분규의 씨앗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인걸은 간데 없고……

# 불교출판의 현주소



## 불교 출판시장 분석으로 본 불교의 현주소

출처: 〈불광〉 500호 기념세미나 자료집
제목: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불교출판 잡지의 미래전략

분석: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

**핵심을 요약하면…**

2015년 종교분야 서적
**불교서적 점유율 14.8%**

개신교 서적이 78.1%
가톨릭 서적은 4.4%

**불교서적 점유율**은
2009년(13.0%)기점으로 상승
2013년(20.6%)로 정점,

**2015년 정점대비 -5.8%나 떨어져**

2008년(10.3%) 대비 점유율 상승은 법정, 법륜, 혜민스님의 베스트셀러의 영향…

종교서적 내 종교별 성장률에서 불교서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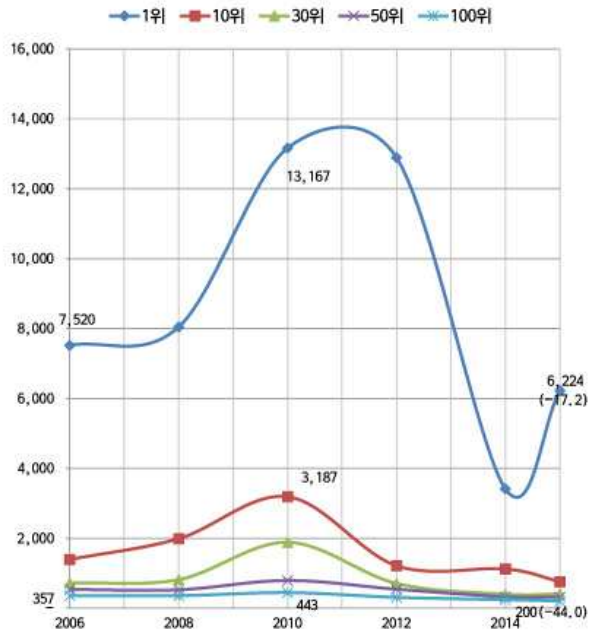
**슈퍼베스트셀러 유무에 따라 들쭉날쭉...**

2007년 법정스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2009년 법정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2010년 법륜스님: 스님의 주례사
2012년 혜민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4년과 2015년에는 -21.1%라는 하락세**

## 종교서적 내 종교별 성장율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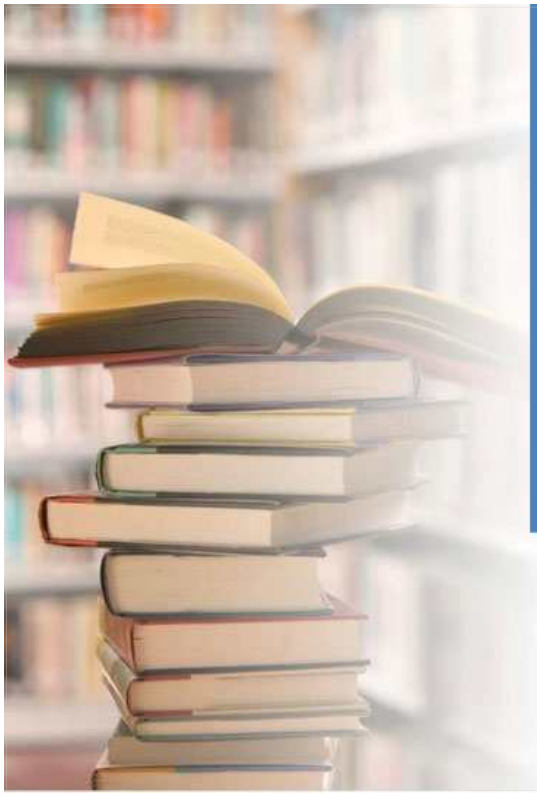
##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판매량 / yes24, 부




베스트셀러 1~10위
집중도 뚜렷
미드셀러와 스테디셀러가 퇴출 중

베스트1위 도서는 2006년 대비
2015년 17.2% 감소,
10위/30위/50위/100위 도서는
40%이상 감소 추세

결국, 출판사 경영의
**베스트셀러 의존도 심화!**
출판영역의 필수 조건인
**다양성의 근본부터 훼손**



## 핵심 문제현상은…

스테디셀러와 미드셀러 축소
구매력 높은 30대 독자 유입 안됨
독자층의 심각한 고령화
정통 불교 출판사 외의 출판에 의한
시장경쟁 심화

## 대응책은…

❶ 인구구조의 전면적 변화, 미디어 환경의 혁신이라는 두겹의 충격
이에 대응한 공동브랜드 설립 등 비즈니스모델의 전면적 혁신 필요

❷ 책에 관한 정보, 불교서적에 대한 접근성 떨어져..
불교서적 전문 마이크로사이트 구축 통해 불교서적 큐레이션 등
책의 발견성을 높여야

❸ 페이퍼 비즈니스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로…
읽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일은 출판사의 몫,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영입해야

# 희망제작소의 창립 10주년 기념 기획연구 소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및 경영지원실장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시대정신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경제·사회·복지·정치·과학·환경·통일·외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1명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세 가지 공통 질문을 던져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내용 전체를 분석해서 '2016년 한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시대에 한국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희망제작소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11번의 만남, 11개의 시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희망제작소의 창립 10주년 기념 기획연구
##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 분석 결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캡쳐〉

## 공통의 세 가지 질문

1.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
2. 이대로 갈 경우 5~10년 후 한국 사회는?
3.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요약

희망제작소는 수많은 갈등과 불안,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을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박정희 모델), '시장 주도 성장지상주의'(IMF 모델)라는 두 개의 과거가 겹쳐진 결과로 보았다. 박정희모델은 경제성장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삼았던 국가동원형 성장지상주의 사회, 가부장적 획일주의를, IMF 모델은 과거는 사회구성원 간 격차가 커지면서 더 나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 경쟁이 사회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은 안전한 '놀이터'라는 제도적 환경 하에서 개인들이 생존의 위협 없이 창조적인 시도를 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이다. 그래서 '2016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키워드'로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것으로서 기득권을 뚫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민주적 정치 리더십,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사회 곳곳에서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를 가장 현실적인 실천영역으로 보아, 20대 국회가 합의 정치 실현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사회적 타협의 틀을 짤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는"안전한'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바로가기

http://www.makehope.org/?p=34626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분석 간담회 바로가기

http://www.makehope.org/?p=34563

### ▌전문가 인터뷰 내용 요약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1.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 세습·봉건사회로의 회귀 경향, 기득권의 지대추구 현상 심화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2. 세습·봉건사회로 회귀해서 진입장벽이 쳐지고, 성장동력이 발견되지 않으며, 특히 노동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

3. 정부는 헌법정신과 사회 요구에 맞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0826

□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1. 저출산 고령화, 이중화(dualization), 민주주의 훼손의 세 가지 문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끌며 심화시키고 있다.

2. 7~8년 후쯤 부양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패닉에 빠질 수 있고, 그때부터는 어떤 정책수단도 소용없다.

3. 합의제 민주주의 강화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1782

□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1. 분배의 실패로 인한 불평등, 재벌 총수 일가로의 기형적인 경제 집중이 문제다.

2. '88만원 세대', '포기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는 '유령인간'이 된다. 사회적 갈등을 지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진다.

3. 진보·보수 막론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야 하고, 분배가 더 이뤄지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재벌기업 내부유보 과세, 비정규직 요건 '직무 기준' 개편, 젊은이들의 사회참여, 정치참여가 더 필요하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1970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 노후가 위태롭고 자식세대 앞날도 깜깜하리라는 중간계층의 불안이 한국사회를 사로잡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오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근간인 복지 시스템의 문제다.

2. 2010~2014년 잠깐 경험한 복지국가의 비전은 한여름밤의 꿈이 될 것이다.

3.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 만들어야, 연대와 협동의 가치 확산을 통해 복지세력 형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를 요구하고 그에 필요한 증세도 합의해 내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3197

□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1. 4반세기 넘도록 민주주의를 해왔는데도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깊은 회의가 사회를 덮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좋은 대표를 통해서 공공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 불평등, 빈곤, 사회적 해체 징후들이 지속되다 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서 동유럽과 남미 나라들처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남부 유럽처럼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3. 정치를 시민의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당은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경합하고, '책임성의 고리' 찾아내 대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3398

□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1. 세상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아차린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다.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진 탓이 크다.

2. 이대로면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할 것이다. '위험사회'로 더 깊숙이 빠지게 된다.

3. 이제라도 둘러앉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 마을에서 적은 돈으로도 오순도순 잘 살아보는 경험을 해야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3651

**□ 이정동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1. 2000년대 이후로 한국에 신산업이 없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획자, 아키텍트(architect·설계자)가 없다.

2. 이대로면 한국은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5년 후쯤 되면 산업이 쇠락하는 것이 보이고,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3. 실패와 시행착오를 용인하고, 나아가 실패는 '공공재'라는 인식 하에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3954

**□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1. 한국 사회에 다양성의 부족이 심각하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이다.

2.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고 심각하게 불행한 사회가 될지 모른다.

3. 개인을 억누르지 말고 행복해지도록,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도록 해서 창의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4150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 경제·사회·산업·공동체 등 여러 측면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2. 더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변화를 유예했다가는 폭력적 형태의 변화를 맞게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3. 시민이 변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정부에 압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환경 에너지 문제가 투표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4276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1.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 즉 세습사회다.

2.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후진국이 치고 올라와 추월하는 사이 뒤쳐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3. 무엇보다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개인 능력 충분히 발현되도록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 개인적 이해관계 따라 대표자 되려는 정치인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이끌 지도자가 나타날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4369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1.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의식 실종과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특히 북한 문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2. 이대로면 한국은 서서히 기울어져 내려가다가 쇠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노령화, 교육 문제 등을 뻔히 보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될 것이다. 당장 2018년 봄으로 예측되는, 북한체제 변화의 기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3. 기득권을 떨쳐내고 미래지향적 결단을 할 정치적 리더십,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환경 제공자,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인터뷰내용 바로가기 : http://www.makehope.org/?p=34406

New Bodhisattva Network

신대승 e - Magazine 제1호(창간호). 2016년 7월호

발행인 류지호 ▌주간 김윤길 ▌편집위원: 강민지, 김시열, 민정희, 백찬홍, 이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형궁 SK허브빌딩 102동 524호 ▌전화 02-725-1994
http://webzine.newbuddha.org ▌후원: 하나은행 162-910019-542041 신대승네트워크